大韓言論

korea Journalists Society

社團法人 大韓言論人會

대표전화 | 02)732-4797~8
Fax 02)730-1270
E-mail | kjc1405@hanmail.net

주요활동
· 공정언론지향·언론문화창달
· 언론관계 출판·연구발표
· 언론상 시상
· 언론인 복지 후생사업

SINCE 1977 www.kjclub.or.kr 月刊 6 2013년 6월 1일 제 327호

“잊지 말자! 6·25” 다시 외쳐야 한다

특별기고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60년전 7월 27일. 정전협정의 체결로 우리는 3년에 걸친 6·25 전쟁의 악몽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긴 악몽과 갈등을 수반하는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과 상의도 없이 반공포로석방을 단행하면서 까지 정전에 극구 반대했던 것은 동족상잔의 추악한 기억까지 더해진 채로 남과 북이 다시 정치적으로 대치하는 민족적 비극이 기약 없이 연장될 것을 우려하고 기왕에 북한이 전쟁을 시작한 바에야 통일이 될 때 까지 그것을 밀어붙임으로써 그런 비극을 미리 차단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전쟁피해규모 확인도 안돼

물리적 측면에서 6·25 전쟁의 피해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확인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점에서도 이견의 폭은 아직도 적지 않다.

4백만이 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살상자 총계나 시설과 토양의 파괴로만 보아도 6·25는 전쟁사상에서도 가장 파괴도가 높았던 전쟁이었다. 그러나 전쟁의 물리적, 경제적 영향을 넘어서서 그것이 민족사에 미친 정치적, 사회심리적 효과가 어떤 것이었나를 생각한다면 남북한간은 고사하고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만도 사실확인이나 해석상의 견해의 수렴은 전혀 없고 본격적 문제제기와 논의는 이제 겨우 시작되까말까 하는 수준이다.

침묵으로 밖에는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족상잔의 심리적 정신적 상처는 깊고 복잡했으며 쉽게 아물지 않고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6·25 전쟁이 우리 대한민국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단기적으로나마 반공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단결할 수 있는 정치풍토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이었다.

6·25 전쟁에서 살아남은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에게는 반공이 자유의 동의어나 다름 없었고 설명이 필요없는 국민적 대의였다.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의 대치개념이었다. 그러나 이념적 성향이나 전쟁중의 체험이 달랐던 사람들이나 철저한 반공안보정책의 성과덕분에 전쟁의 경험없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 전후 세대 사이에서는 반공이 당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화와 통일이라는 명분아래 국가의 존재이유조차 부정하는듯한 위험한 심리구조가 형성되고 있었다.

민주화의 대의가 수정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풍조와 맞물리면서 기억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이 서서히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구세대는 감지하지 못했다. 통일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아래 동족상잔의 전쟁도 불사했던 북한은 우리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 추세가 가속화 함에 따라 역사교육을 정치도구로 이용하는 구 소련으로부터 선전선동의 기술을 전수받은 세력들의 활약도 그 만큼 활발해졌다. 운동권 교육은 ‘해방전후사’에 초점이 맞추어 졌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구 소련과 북한의 시각으로 우리 현대사를 바라보는 습성이 반제·반미·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아래 굳어져갔다.

‘김일성에 면죄부’ 기도까지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에게는 6·25 전쟁이 북한군의 전면적인 기습 남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는 직접 경험이었다.

그리고 소련과 유럽의 공산주의체제 붕괴 이후 공개된 기밀문건들은 미국과 3차 대전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여 남침을 허락하기를 주저하는 스탈린을 김일성이 모스크바로 두 차례나 방문하며 집요하게 설득시킨 후 전쟁을 준비한 과정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세대 우리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남한의 북한침략 또는 남침유도설이 정설처럼 수용되어 지금까지도 그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 않고 있다.

그 뿐더러 마치 전쟁을 촉발한 김일성에게 면죄부라도 주려는듯 그런 연구자들의 시선은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저지른 이른바 민간인 학살에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서는 제대로 훈련받을 겨를도 없던 어린 청년들을 험악한 전투에 투입했어야 함은 물론 민간인들의 희생을 각오하면서 까지도 공산 게릴라를 소탕하는 일을 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줄 모르고 미군의 폭격으로 피해입은 평양시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넋빠진 소리까지 부끄럼 없이 외쳐대는 판이다. 전쟁이란 네가 먼저 죽느냐 내가 먼저 죽느냐의 판가름의 연속과정임을 모르는 철부지들이 ‘집단학살’을 운운한다.

좌파, 민주화 편승 집요한 왜곡선동
‘反共’ 大義 사라져 국가존립 위기에

북한군 만행 언급 거의 없어

6·25 전쟁 관련 저술들 대다수는 공산군 점령하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단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수모를 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로 학살당하거나 강제징집 또는 강제북송당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고 북한에 의해 ‘토지개혁’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한다.

불행히도 6·25 전쟁을 직접 체험한 세대가 남겨 놓은 전쟁 관련저술들은 오늘날 젊은이들은 읽을 줄 모르는 한자가 많이 섞인 두꺼운 책들이기 때문에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6·25에 관한 우리 사회의 기억상실증과 무관하지 않다.

체험을 통해 실상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려는 친북세력의 집요한 노력은 별로 제어를 받지 않는 것이다. 평화통일이 가장 중요한 민족적 대의로 주창되고 있는 마당에서 6·25 전쟁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마치 민족적 염원에 찬물을 껴얹는 행위인양 지탄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평화통일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전쟁이 어떤 것이며 이념과 역사적 체험을 달리하는 남북한의 두 나라 사람들이 마주 부닥칠 때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6·25 전쟁이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었는가를 바로 이해하고 그러한 비극적 사태를 초래했던 주동세력의 행태와 사상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평화공존과 통일에 도움이 될 뿐 더러 우리나라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국가의 보호망이 제거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 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6·25 전쟁보다 더 좋은 교훈이 있을 수 없었다.

불편한 진실 외면 말아야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병폐가운데 하나는 이성으로 감성이나 격정을 다스릴 줄 모르고 불편한 진실은 외면해 버리려는 습성이다. 6·25에 기습을 당한 우리에게 유엔과 미군의 도움이 없었으면 전쟁은 강정구 교수가 말했듯이 한달만에 끝났을 것이다. 우리는 그 후 어떻게 되었고 지금쯤 어떤 모습을 할 수 있었을까. 미제국주의의 도움없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정전과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도록 만든 이승만 대통령의 나라사랑과 뚝심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을까. 역사는 지나간 일을 설명하지 가상을 다루는 학문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기억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가상법적인 질문도 때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북한에겐 '확실한 말'을 해줘야 한다

'우리 민족 끼리' 더 이상 믿어선 안돼 '망나니 행동 분명한 대가' 깨우쳐야

박현태
·본회 회우
·전 국회의원
·전 KBS사장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이런 애매모호한 말을 해서는 안 통한다. 남과 북의 주민들은 확실히 같은 민족이다. 그러나 이런 애매모호한 말로는 그들의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같은 민족끼리 어찌 감히 6·25전쟁을 일으켰는가.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서울을 어찌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같은 우리말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 말의 뜻은 전혀 다르다. 이것을 알아야만, 그들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것을 깨닫는데 우리는 실로 70년의 세월을 낭비했다.

남은 방법은 앞으로 확실한 말을 쓰는 것 뿐이다. '한다' '안한다' '친다' '안친다' '미사일에 연료를 장전하기 시작한다면 선제공격으로 이를 파괴한다'고 해야 한다. 우리는 북이 못가지고 있는 고성능 전투폭격기 F-16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쳐들어간다면 그들의 핵기지는 순식간에 쓰레기더미가 되고 만다. 이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한다.

그들은 어느날 갑자기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그들의 근로자 5만3천명의 출근을 금지시켰다. 이것은 이른바 '개성공단 사건'의 시작이었다. 우리 측 인원들도 모두 철수 했으나 그들은 3월분 임금과 세금을 지불하라면서 우리 측 관리공단직원 5명과 통신을 담당하는 KT직원 2명을 붙들어 놓고 있었다. 어불성설이다. 임금도 주는 날짜가 있고 세금도 납부하는 기일이 있다. 그런 것을 일절 무시하고 그들 마음대로 문을 닫게 하고 돈을 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막가는 행위이다.

기분대로 한다면 우리 측에서 올라가는 전깃줄도 끊고 수도관도 즉각 잠가야 한다. 그러나 그들도 그렇게까지는 해 놓기 싫은 모양이었다. 그들 근로자들에게는 월 평균 150달러씩 월급이 지급되고 있다. 그 대부분을 그들 정부가 삥땅을 하고 있지만 아무데서도 외화 들어올 데가 없는 그들에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입이다. 이것을 간단히 놓치기는 아깝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미적대고 있었다. 아무래도 미련이 남는 모양이었다.

우리 측 인원은 그들이 그들의 근로자들을 철수시킨 지 5일 만에 완전 철수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요구한 노임 등의 문제가 완전 청산되었음에도 우리 측이 요구한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반출에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우리 측이 전기와 수도를 끊으면 공단이 망가진다며 우려했다. 그들의 표정은 씁쓸했다. 애초에 공단 패쇄의 이유로 내세웠던 이른바 '최고 존엄'을 모욕했다는 발언은 그들의 발목을 잡는 실수였다.

그 후의 김정은 동정이라는 것도 실로 가소롭다.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축구 구경이나 가고 경제시찰을 한다면서 개업을 앞두고 있는 철판구이 식당에나 찾아가고 있는가.

그들이 '최고 존엄' 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김정은의 표정도 가관이다. 전 세계에 그 사진이 배포되었고 나도 지금 그 사진을 보고 있지만 최고 존엄에 걸맞는 표정은 찾아볼 수가 없다. 느낌대로 말한다면 그저 코미디언이다. 국제정세를 보는 우리의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천편일률적인, 정형화된 시각(stereotyped phrases)을 탈피해야 한다. 가령 '야스쿠니 신사 참배' 하면 군국주의 부활, 우경화라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찬찬히 살펴야 한다. 내가 보기에 이번 야스쿠니 신사 춘계대제에 일본 국회의원이 대거 참배한 것은 배일 운동을 끈질기게 고조시키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다. 세상은 매일 매일 변화하고 있다. 케케묵은 옛날 잣대로는 오늘을 이해할 수 없다.

변화무쌍한 국제정치를 제대로 읽으려면 일정한 정보의 축적이 필요하다. 그런 것 없이 일반 상식으로 이를 이해하려한다면 그것은 국제정세를 잘못 보는 결과가 될 것이다. 중국과 일본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저 잠자코 지켜보고 있는 것이 상책이다.

우리로서는 북한 문제가 선결이다. 만일 한반도에 문제가 생긴다면 확실이 우리 편을 들고 나설 나라는 일본뿐이다. 일본에게는 그럴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다. 중국은 여전히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런가. 중국은 지금 그들 국내문제만으로도 너무나 심각하다. 국영기업의 부실도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도 부도직전이다. 미국이 하도 강하게 압박하니 마지못해 북을 견제하는 척 하고 있을 뿐이다.

케리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후 중국은 북한으로 연결된 석유와 가스관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드디어 북에 지원되는 에너지의 4분의1을 감량시켰다. 이런 사태에 이르자 북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그들은 수 십년간 이른바 '주체' 를 부르짖었다. 그래도 '주체'는 이루어 지지 않았고 끝내 남의 나라에 의존해서 궁색한 살림을 꾸려왔다. 이제는 험악한 언사로 우리를 협박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밑천은 다 드러났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들의 입뿐이다. 그들은 동해안에 세워 놓고 있던 그들의 중거리 미사일도 슬그머니 철거했다. 결국 북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나라는 우리뿐이다. 우리가 제대로 때맞추어 사태에 대처하고 나서면 우방들도 우리를 도울 것이고 반면 우리가 확고한 의지 없이 미적거리면 현상고착으로 가고 말 것이다. 어느 길이 옳은가.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개성공단을 만든 당시의 정권은 무얼 믿고 이런 불안정한 지역에 막대한 국비를 들여 그것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민족끼리' 를 믿고 '평화'를 부르짖기만 하면 앞으로 남북간에는 영원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신했느냐. 이것이 문제이다.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그들은 지금도 우리를 '괴뢰패당'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런 무리들과 대화가 되겠는가. 어거지에는 우리의 의지만이 약이다.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

6 · 25참전 언론인 수기 7월초 출간

대한언론인회 6·25 참전언론인회(회장 박기병·전 강원민방 사장)는 대한언론인회의 주관으로 오는 7월 초에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4×6배판 총 3백여 쪽·비매품)를 출간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읽기문화팀의 지원으로 출간하는 이 책은 참전언론인(종군기자 포함) 34명이 겪은 생생한 증언과 전쟁현장을 누빈 종군기자들의 눈부신 활약상이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펜은 창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언론인으로서 사회정의 실현과 국가발전을 위해 사명을 다해 오신 6·25 참전언론인들의 참전 수기는 국가안보역량강화에 있어서 그 어떤 무기체계보다도 강한 정신적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모쪼록 우리 독자들이 수기집을 통해 6·25 전쟁의 참상과 원로언론인들의 활약상을 이해하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요지의 축간사를 보내왔다.

이 책은 언론재단이 지정한 국내 100대 도서관에 배포되며 국방부 정훈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6·25참전언론인 수기 출간에 붙여 보내온 축간사 전문이다.

축 간 사

김관진
·국방장관

6·25전쟁 당시 국군장병과 종군기자로 참전하셨던 원로언론인들의 수기집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출판을 위해 애쓰신 대한언론인회와 6·25참전언론인회,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에 감사드리며, 원로언론인 여러분의 위국헌신과 열정에 대해서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라는 수기집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이 책의 출간 취지는 원로언론인들의 참전경험을 전후세대들에게 알려주어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6·25전쟁은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김일성이 한반도 적화를 위해 일으킨 명백한 남침전쟁입니다. 휴전이후에도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끊임없는 만행을 일삼으며 저들의 대남전략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3차 핵실험과 '남한파괴', '전시상황 돌입' 선언 등 온갖 수사적 위협과 군사력 시위로 우리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편승하여 6·25전쟁의 진실을 오도하거나 대한민국의 체제와 이념을 부정하며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종북

3면으로 이어집니다.

좌파온상 문화계 두고만 볼 수 없다

특별기고

이종덕
·광화문 문화포럼 회장
·충무아트홀 사장

‘창조적 예술가’로 위장 뿌리 내려 ‘종북세력 솎아내기’ 적극 나설때

문화란 인간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청량제이자 혼탁한 영혼을 씻어내는 정화수이다. 정신을 맑게 한다는 것은 광대한 우주와 숭고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의 촉수를 닦는 것이고, 영혼을 씻어낸다는 것은 헛된 욕심을 버리고 진정한 나를 찾는 일이다. 우리는 문화를 통해 삶의 진실성을 되찾고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에너지를 얻는다. 이처럼 문화란 가장 순수하고 정갈한 영역이다. 깨끗할수록 아름답게 빛나고 시류에 휩쓸리지 않을 때 더욱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문화다.

문화의 진정한 의미 사라져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계를 보면 문화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기 힘들다. 석궁테러를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정지영 감독이 기획·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와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해 역사왜곡을 일삼아온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보면 문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천안함 프로젝트’는 북한군의 어뢰공격으로 46명의 꽃다운 용사가 목숨을 잃은 천안함 사건을 다룬 영화로 북한군의 폭침이 원인이라는 정부의 공식발표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다. 문화가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켜 북한에 대해 확고하고 일치된 대응을 일깨워도 모자랄 판에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정부의 존엄성마저 무시하고 있다. ‘백년전쟁’은 한 술 더 뜬다. 건국과 산업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이승만과 박정희대통령을 친일파 등으로 매도하고 부정하는 이 영화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완전히 폄훼하고 있다.

‘백년전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승만대통령을 ‘친일파’와 독립운동자금을 마음대로 쓴 ‘파렴치범’ 그리고 젊은 여자와 놀아난 ‘호색한’으로 그리고 있다. 이승만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인격살인이자 전임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다. 이승만대통령의 친일행적은 ‘백년전쟁’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서 조차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이미 학계에서 논란이 끝난 문제이다.

오히려 이승만대통령은 일본이 가장 먼저 제거하려고 했던 한국인사였음이 최근에 밝혀졌을 정도로 투철한 역사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평생을 노력했다. 이승만대통령을 ‘파렴치범’이나 ‘호색한’으로 묘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가관이다. 이승만대통령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단체의 자료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하거나 사진을 조작해 마치 젊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처럼 표현한 것은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다. ‘백년전쟁’의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호도도 상상을 초월한다.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시대와 6·25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첫 걸음이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박정희대통령의 정책적 판단과 애국심의 발로가 아닌 마치 미국이 시켜서 마지못해 따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물론 장면정부하에서 경제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계획을 현실로 이끄는 힘과 국가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집념과 의지 그리고 결과이다. 박정희대통령의 전무후무한 경제계획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입국으로 급부상해 신흥경제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고 이는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라는 국력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만약 박정희대통령의 경제계획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해도 끔찍하고 생각할수록 식은땀이 난다. 온 국민이 추앙하는 박정희대통령을 미국에서 입수한 일부 편협한 자료를 통해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와 정략적인 노림수가 있는 국기문란행위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도 그 기초와 뿌리를 닦은 박정희대통령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전국민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역대 대통령으로 박정희대통령을 첫 손에 꼽는 것도 그의 탁월한 리더십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

‘백년전쟁’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국민적 인식에 부합하지 않는 악랄한 동영상을 제작한 것은 치졸한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 동영상이 지난 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개된 것부터가 문제였다. 특정한 정치세력과 결탁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빼앗아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어가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의 열망을 잠재우려는 꼼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 최초의 여성대사인 이인호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이 문제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통탄할 정도로 문화를 빙자한 역사날조가 도를 넘고 있다. 이러한 일은 비단 영화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조명하고자 만든 연극 ‘한강의 기적’은 공연의 막도 올리지 못한 채 올 초에 주저앉아버렸고, 진보를 가장한 문인들은 쌍용자동차와 제주 강정마을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물론 의도적으로 개입해 국가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가 이념의 도구이자 이데올로기 선전의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문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집단 때문이다. 그 중심에 바로 좌파용공세력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좌파용공세력은 1970~80년대 민주화를 주도했던 건전한 시민정치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좌파용공세력이 영화와 방송은 물론 공연과 미술 등 문화계 전반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휘저으며 농락하면서 문화 본연의 가치를 심하게 왜곡시키고 있다. 문화가 정신과 영혼의 성소(聖所)가 아닌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이전투구로 활용될 때 문화의 생명력은 사그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일촉즉발의 남북대결, 일본의 역사왜곡 등 대내·외적인 환경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전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야할 시점에 불순한 세력들에 의해 내부적인 갈등이 깊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한국이 자랑하는 소설가 이문열씨마저 좌파세력에 의한 문화계 쏠림현상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의 이런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념 편향성으로 무장

결국 우리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는 좌파용공세력 특히 문화계에서 창조적인 예술가로 위장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종북세력을 솎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적 흑백논리와 이념의 편향성으로 무장해 국민을 호도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비난하며 미래를 거꾸로 돌리려는 문화계 좌파종북세력과 단호하게 맞서야한다. 유독 문화계에 좌파종북세력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감성적이고 즉흥적인 청소년들과 20~30대 젊은 층들이 쉽게 동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의 올바른 역사를 지우고 이념으로 굴절된 역사만을 부각시켜 정치와 문화권력을 잡고자하는 획책 때문이다.

어쩌다가 우리의 문화계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어쩌다가 우리의 예술계가 정치에 종속되고 이념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 국민행복의 이정표이자 국가발전의 나침반인 문화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이다. 침묵과 묵인으로 일관한 대다수 문화계 인사들이 이제는 모두 일어나 대한민국의 문화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념의 틀에 갇힌 문화를 살려내고 좌경의 굴레를 쓴 예술을 바로 세워 좌파용공세력이 더 이상은 문화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모든 문화계인사들은 일치단결해 좌파용공세력을 몰아내야 한다. 순수를 가장하고 창조로 위장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쓰레기로 몰아가고 있는 사이비 문화계 좌파용공세력에게 철퇴를 가해야한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문화를 살리고 모든 국민이 문화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문화계인사들에게 촉구한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고삐 풀린 좌파용공세력을 몰아내는데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행복하다.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2면에서 이어집니다.

세력들이 공공연히 활동하고 있어 국가의 안위를 걱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안보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참전언론인들께서 출간하신 수기집은 6·25전쟁의 참상과 북한의 실체를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하는지’를 극명하게 일깨워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펜은 창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언론인으로서 사회정의 실현과 국가발전을 위해 사명을 다해 오신 여러분의 참전 수기는 국가안보역량강화에 있어서 그 어떤 무기체계보다도 강한 정신적 힘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독자들이 수기집을 통해 6·25전쟁의 참상과 원로언론인들의 활약상을 이해하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6·25참전언론인들의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 수기집이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理性' 지켜지고 있나

윤창중사건 언론-정계 대응 한심
사소한일 과잉소란에 나라 망신

구종서
·본회 논설위원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전 남북적십자회담 한국측 대표

기본 일탈한 윤창중의 비행

청와대 전 대변인 윤창중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 성추행을 벌인 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는 한동안 시끄러운 소란에 휩쓸렸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만가지 생각과 잡다한 의문이 떠올랐다.

중요한 국가임무에 한창 바빠야 할 때, 고위 공무원 윤창중이 어떻게 기본임무에서 일탈하여 한가하게 떠돌며 딴 짓을 벌일 수 있었는가. 외교관 지망의 푸른 꿈을 품고 모국의 대통령 방미를 돕기 위해 나선 우리 여성을 그렇게 짓밟아 모욕할 수 있었는가.

경쟁이 심한 언론계에서 중요역할을 맡아온 윤창중은 칼럼과 방송대담으로 성가를 높인 뒤, 많은 반대여론을 뿌리치고 결국 청와대에 입성했다. 성추행이 문제되자 그는 현직에서 퇴출되어 혼자서 먼저 귀국한 뒤, 자기 행위에 관한 보도를 보다가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만천하에 공개된 그의 발표는 무책임한 자기변호에다 내용이 사실과 너무나 달랐음이 밝혀지고 있어 반발이 빗발쳤다. 언론인 출신의 그가 어떻게 그런 거짓을 공공연하게 펼 수 있었는가. 도대체 그는 어떻게 기자가 됐는가. 입사 후 제대로 기자교육을 받았는가. 정확한 진실파악과 공정한 논평, 균형잡힌 편집을 생명으로 삼는 언론정신과 기자의 길을 알고 있었는가.

본질 벗어난 언론의 보도

윤창중 사건의 보도문제는 피해자의 간접적인 경찰신고와 교포사회의 부녀자용 인터넷신문인 〈Missy USA〉의 '성폭력' '성폭행' 의미의 보도를 계기로, 국내 방송과 신문의 톱기사가 됐다. 그러나 진실은 육체를 침범한 성폭력이 아닌 성추행이었다. 그래서 신고받은 미국경찰은 '경범죄'로 분류하여 조용히 조사하고 있을 때, 우리 방송·신문은 그것을 천하대사(天下大事)인냥 연일 중요기사로 보도하고 있었다.

이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경찰이나 피해 여성의 설명을 통한 진실파악이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한 것은 피해자 본인이 아닌 룸메이트였다. 우리 매체들은 피해자나 수사경찰 등 진실의 근원에 접근하지 못한 채, 인터넷신문의 과장보도를 토대로, 내용을 맘대로 상상하여 보도하고 있었다.

윤창중의 성 추행이 몇 년의 징역형에 해당한다느니, 그가 스스로 미국 경찰에 나가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느니, 청와대의 집무체계가 잘못돼 있다느니, 하면서 법석이었다. 보도자세는 자국의 위신과 자국민 보호의 틀을 벗어나, 중벌 위주로 처리돼야 한다는 투였다. 북한의 잇단 위협과 일본정부의 비상식적인 언동 속에서, 대통령이 국가의 생존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대한 교섭을 성공적으로 벌이고 있을 때, 언론은 국익을 외면한 채 대통령의 성과보도는 제쳐놓고, 부끄러운 진실을 들고 나와 흥미위주로 즐기고 있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겠는가.

정상 벗어난 야당의 정치계산

경솔하기는 정계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야당은 정치적인 계산 끝에 잽싸게 끼어들어,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열어 진상을 밝히고 문책해야 한다느니,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느니, 비서실장 이하 청와대 고위직 모두가 물러나야 한다느니 하며, 안타깝기 보다는 잘 됐다는 식으로 소란을 부렸다.

한국국회는 매년 쌓인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시한을 넘겨 사문화시키는 판에, 윤창중 문제 따위를 놓고 국정조사나 벌여야 할 것인가. 대통령이 사과할지 말지, 또는 청와대 간부들을 교체할 것인지 여부는 대통령 자신에게 맡겨두고 볼 일이지, 국정의 중대과제 해결에 나서서 바쁜 대통령에게 야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일은 아니지 않는가. 야당은 내분과 졸속으로 상실한 국민지지와 빼앗긴 정치력을 회복키 위해, 나라의 수치를 기회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세로 보였다. 그런 정신 상태로 국정을 위임받을 신뢰정당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는가.

치욕 즐길 세력은 누구인가

이번 사건의 진실은 진행 중인 미국의 경찰조사가 끝난 다음에야 밝혀질 일이고, 윤창중의 경찰출두여부는 미국의 요청이 있은 다음에 결정될 일이다. 그러나 우리 언론과 정계는 그런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너무 성급했다.

진실을 벗어난 보도는 언론의 죄악이다. 누가 그것을 믿겠는가. 시청자가 믿지 않고, 독자가 불신한다면, 그건 언론이 아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이성이 있는 국가인지, 부끄러울 지경이다.

의회의 여야는 국회의원의 특혜를 내려놓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하고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해 놓고도 계속 외면하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국익과 무관한 하찮은 일에만 집착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 언론과 의회가 그런 과잉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좋아할 세력은 우리를 적대시하여 공격을 퍼붓고 있는 북쪽과 상승 발전하고 있는 우리를 경쟁자로 삼아 부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쇠퇴 도중의 동쪽뿐이다. 그들은 윤창중 스캔들이 한국정치 한국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民格' 따라갈 '國格' 아쉬워

박근혜대통령은 국제적인 통제력을 쥐고 있는 세계 양대강국 중, 동맹국인 미국을 먼저 방문하여 안전보장 문제를 성공적으로 협의했고, 다음엔 인접대국인 중국을 방문하여 외교통일 등 한반도 문제를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지금은 우리가 국가의 안전과 통일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국가전략 차원의 중대시기다. 이런 중요한 국가전략 과제를 앞두고, 우리 사회의 핵심세력인 관료와 언론·의회가 국익차원에서 일탈하여, 조그마한 문제에 매달려 연일 정력만 소모하고 있을 것인가. 이래서는 국가이성(國家理性)을 상실한 채 제멋대로 날뛰는 우리 주변의 몇몇 적대세력 경쟁세력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민격(民格)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올림픽과 국제회의 등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능숙한 품격은 세계적으로 공인 받은 지 오래다. 그러나 국격(國格)은 분명히 민격보다 못하다. 관료 언론 의회가 본연의 궤도에서 벗어나 비이성적으로 행동한 결과다.

우리 역사엔 자신의 세속적인 이해를 초월하여,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훌륭한 선비들의 애국적인 국사정신(國士精神)이 많이 있었다. 지금은 우리 국가의 엘리트들이 '국사'가 되어, 국가이성을 바로 세워 국격을 민격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때다.

노인병과 노화현상

이보길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해설위원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 15조 4,000억원 규모인 노인진료비는 불과 7년 뒤인 2020년에는 약 3배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초고령화사회(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20%)에 진입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7년에 불과하다. 프랑스(41년)·독일(40년)·미국(14년)에 비해 너무나 빠르다. 그래서 의료보험비용을 부담할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노인들은 평소 건강에 관심을 갖고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한다면 우리 후세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노년이 되면 몸이 아픈데도 많아지고 따라서 병원 출입이 잦아지게 되고 쇠약해져 몸져 눕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질병을 노인병이라 한다.

노인병은 주로 75세 이상의 고령으로, 기운이 없고, 식사를 잘 못하며,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감소한 상태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말하며, 치료해도 잘 낫지 않고 합병증이 생기기 쉬우며 앓고 나면 더 쇠약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노화현상과 노인병은 다르다는 것이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즉 노화현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노인병에 걸릴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진다. 그래서 노화현상을 노인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화현상이란, 눈이 침침해져 잘 안보이게 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잘 빠지고,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이 많아지며, 심장박동도 느려지거나 불규칙해지고, 폐기능이 약해져서 숨이 잘 가빠지고, 근육이 가늘어지면서 힘이 없어지고, 뼈도 약해져서 잘 부러지며, 뇌기능이 떨어지면서 기억력이 줄어드는 현상 등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노화현상은 병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노인병은 치료를 하면 완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되거나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지만 노화현상은 치료한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는다.

5면으로 이어집니다.

‘국회의원 특권포기’ 언제 지키려나

여야 앞다툰 공약 1년 지나도 미적
日규탄 결의안도 정족수 안돼 무산

최희조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상무
·세종대 석좌교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세금으로 연간 6억원의 지원을 받는다. 여기에는 월급에 해당하는 세비를 비롯하여 각종 수당, 9명까지 둘 수 있는 보좌관 연봉, 의원회관 운영비, 차량 지원비, 업무용 택시비와 야식비까지 포함된다. 정치후원금은 별도다.

보좌관에 친인척 이름을 올려놓고 보수는 의원이 챙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임기 4년간 약24억원, 정원 300명의 의원들이 1조원에 가까운 국민혈세를 사용한다.

그런가 하면 단 하루만 금배지를 달아도 65세부터 숨질 때까지 금년 기준 1백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재정지원 말고도 의원들은 각종 특권을 누리는데 그 가짓수가 2백여 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출국심사를 받지 않아줄을 서지 않아도 되며 VIP룸과 귀빈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여의도 의사당에서는 국회의원 전용 출입구와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헬스클럽과 수영장 등을 갖춰 휴양지에 버금가는 의정 연수원을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 변호사, 의사, 약사, 관세사 겸직이 가능하고 대학교수는 휴직하면 된다.

여야합의 법안처리 외면

여 야 의원들은 작년 4월 총선 이후 12월 대선을 치르는 사이 국민비판과 지탄을 받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앞다투어 선언해 왔다. 그러나 정작 여야는 그동안 정치쇄신을 위해 추진해온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계류시켜 놓은 채 특권 내려놓기를 만지작거리는 척 하기만 하고 있어 국민의 빈축을 산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내건 약속과는 달리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는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을 연상케 한다. 총선이나 대선 같은 큰 선거를 앞두고는 국민에게 납작 엎드리는 시늉을 하다가 선거가 끝난 뒤에는 언제 그랬느냐 싶게 돌아서는 양태나 다름 없다.

국회는 지난 1월 의원연금제도를 폐지하는 헌정회 육성법 등 10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제출된 이들 법안들이 5개월째 발이 묶여 있다. 여야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전후로 불체포특권 포기, 보좌진 축소 등 ‘슈퍼 갑’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국회쇄신특위가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발의한 10개 법안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모두 △국회의원 겸직 금지 △헌정회 연로의원 지원금(의원 연금) 개선 △국회폭력 방지 △인사청문회 개선 등 여야가 합의한 4개 의제와 관련된 법안들이다. 불체포 특권 포기와 세비 삭감 등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안 됐다.

4월 임시국회를 건너 뛴 이 법안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미지수다. 의원겸직의 경우 이 한 가지 특권만 보더라도 현 19대 국회의원 3명 중 1명이 여전히 겸직으로 돼 있는 실정이다.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정치쇄신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위에 입법권이 없기 때문”이라며 “여야 모두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으니 6월 임시국회에선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쇄신 과제 중 일부는 작년 대선을 앞두고 인기몰이식으로 공약된 것도 있다”고 주장, 당초 내걸었던 특권 포기 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정치권이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정당의 영향력 공백을 지방 토호들이 차지해 자칫 금권정치로 흘러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표심을 잡기 위해 꺼내 놓은 기득권 포기 약속을 하나 둘 씩 다시 주워 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 고질적 병폐인 말바꾸기가 이번에도 재연될지 지켜 볼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을 ‘을’로 보는 행위

남양유업과 대리점 간에 불거진 갑과 을의 불합리한 관계가 그동안 외면 받아오다 어느 날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갑인 남양유업의 눈물도 피도 없는 횡포에 갑의 제품을 받아다 팔아서 먹고 사는 을의 입장인 수많은 대리점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려 일부는 억울하게도 스스로 숨져간 뒤의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와도 무관한 반사회적 악덕 기업의 행태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언필칭 국민의 대변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남양유업처럼 국민을 을로 보고 갑 행세를 해왔다.

국민 혈세로 4년간 엄청난 돈을 쓰면서 수백가지 특혜를 누려온 조직과 구성원이 대한민국 국회요, 의원들이다. 뒤늦게 나마 그러한 갑의 지위를 내려 놓겠다고 스스로들 다짐했지만 여전히 예전 모습에서 벗어날 줄 모른다. 창당도 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이 정치쇄신을 내건 하나 만으로 국민의 높은 지지와 기대를 받는 이유를 헤아려 볼 만하다.

정치쇄신은 제도개선과 국회의원들의 특권포기와 함께 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진정성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납득할 수 없는 일로 국가 중대사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런 국회의원들을 국민은 좌시할 수 없다.

4월26일 국회 본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일본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일본의 아베 총리 등 정치인들의 잇단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군국주의 침략전쟁 부인 발언을 외교적 도발행위로 규탄하는 내용을 정족수 미달로 당일 채택하지 못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일본 내각과 우익인사들의 몰염치하고 비이성적 망언과 망동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다른 이유도 아닌 정족수 미달로 결의안 채택이 불발에 그쳤다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도 남을 일이다.

본회의에 70여명만이 참석, 오후 5시까지 정족수 1백51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3일 뒤 겨우 정족수를 채워 결의안을 채택했으니 시쳇말로 김이 새고 말았다.

4월8일 국회외교통일위에서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현안보고 중 류 장관이 북한의 지도자에게 호칭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민주당의 심재권의원이 시비를 걸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선 남한에서도 흔히 이름만 불러대면서도 무력도발과 인권탄압을 일삼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를 하는 북한 지도자에 대해선 꼬박꼬박 호칭을 붙여야 하는 건 모순이다.

어쨌거나 의원들이 국민에게 행한 정치쇄신과 특권포기 공약을 속히 이행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국회의원으로 거듭 나길 바란다.

4면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발생시기가 중요한데 노화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나이또래에 비해 너무 빨리 생긴다면 노인병일 가능성이 많다. 옛날엔 50~60대 때부터 노화현상이 생기기도 했지만 건강수준이 많이 좋아진 지금은 노화현상이 심해지는 시기가 대략 70대 중반 전후로 보고 있으므로, 그보다 젊은 나이에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노화현상이 생겼다면 노인병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발병양상이 다르다. 노화현상은 서서히 나타나고 조금씩 진행하지만, 노인병은 갑자기 발생하고 증상이 빠르게 진행된다. 며칠 전, 몇 주 전까지도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정신이 흐려졌다면 노인병이 생겼다는 증거다.

대표적인 노인병으로는 치매, 난청, 백내장, 골다공증,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노쇠 등이 있는데 이들 질환은 노년기에 접어들어서야 생기고,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이 생기면서 심해지는 병들이라서 ‘노인 특유 질환’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 외에도 ‘노년기에 잘 생기는 병’으로는 폐렴, 방광염, 대상포진, 불면증, 우울증, 신경통, 골절, 뇌경색, 만성폐쇄성폐질환, 빈혈, 갑상선기능저하증, 전해질장애 등이 있다.

노인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기운이 없고, 어지럼증, 걷기가 불편, 잦은 낙상, 대소변 지림, 식욕을 잃음,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헛소리, 전신이 아파 끙끙 앓음, 만사가 귀찮아 집안에서만 지냄 등과 같은 증상이다. 노인병의 예방과 치료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인데, 그 중 핵심적 방법은 좋은 영양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노인병 주치의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다. 또 매일 세끼 식사를 챙겨 먹되 채소와 함께, 고기나 생선, 우유, 달걀 같은 단백질이 빠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영양제도 함께 먹는다.

그리고 다리의 근력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 중요하므로 앉았다 일어서기, 계단오르기, 걷기, 수영 등을 매일 또는 최소한 일주일에 4일이상 하는게 좋다. 치매를 예방하고 뇌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책읽기, 쓰기, 무엇이든 새롭게 배우기, 취미생활 하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등을 열심히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계속 몸이 불편하다면 노화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체없이 노인병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야하는데 이때는 빨리 진단을 내릴 수 있어 합병증이 생기기전에 노인병을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다.

정치목적 역사왜곡 거짓말 판친다

좌파학계-일부386출신 연합구조 대한민국주류 현대사 부정 시도

특별기고

한기홍
·(사)북한민주화 네트워크 대표
·(사)시대정신 이사

최근 몇몇 종편채널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 시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 침투했다"는 한 탈북자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사과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인민군의 광주 개입설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자신이 광주에 파견됐다는 한 탈북자의 증언이 나오자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보도한 것이다.

물론 역사란 새로운 증거들에 의해서 수정되고 새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훗날 북한이 붕괴되고 충분히 신빙성 있는 증거들이 나온다면 5·18에 대한 역사적 해석도 달라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수많은 시민과 기자와 계엄군들의 진술이 있고, 권위주의 정부가 끝나고도 수차례 정권교체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정부나 언론 학계에 의해서 새로 밝혀진 사실이 없다면, 일부 종편의 성급한 보도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종편의 일회성 보도와는 차원이 다른 좌파 이념운동 세력의 역사 왜곡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이들은 좌파 학계, 386 출신들이 장악한 미디어와 강고한 연합구조를 형성해 한국 현대사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려는 시도를 집요하게 진행하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친일파와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에 입각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역인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이하 생략)을 폄훼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사학계 인사들의 인터뷰와 미국에서 작성된 각종 보고서와 증언, 신문 기사를 교묘하게 왜곡, 짜깁기해 동영상 '백년전쟁'을 제작·배포했다. 총 6부작의 다큐멘터리 중 '두 얼굴의 이승만'에서는 그가 사이비 독립운동가이고, 교민들의 재산을 갈취했으며, 중년의 나이에 어린 여성과 바람을 피운 파렴치한 인물로 묘사했다.

이승만은 미국에 유학해 공부하면서 초기 독립운동의 방향을 제3국 무장투쟁이 아닌 교민조직을 강화해 인재를 양성하고, 독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외교활동에 집중한다. 그리고 무장투쟁의 한계를 직시하고 해당국의 법률을 존중할 것을 주장한다.

미국이 일본과 전쟁에 돌입한 이후에는 적극적인 투쟁의 필요성도 주장하고 나선다. 이 과정에서 하와이 등에서 노선 문제의 대립으로 다른 교민조직과 갈등이 벌어졌는데, 백년전쟁은 이 과정을 돈 욕심이 가득한 갱단 두목 이승만의 권력투쟁으로 묘사한다. 또한 이승만이 하와이 교민들의 기부금과 학생 기숙사 부지를 갈취한 것처럼 묘사했는데, 사실은 이승만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8년제 남녀공학 최고급 기숙사 '한인기독학원'이 하와이에 건설됐다.

또한 백년전쟁은 "46세의 이승만이 그를 숭배하는 22세의 오벌린대 여대생 김노디와 여행을 하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그리고 최고급 럭셔리 호텔에서 함께 잤다"며 그가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을 성추문이나 일으키는 바람둥이로 묘사해 인격살인을 자행한 것이다.

그러나 김노디는 이승만을 아버지처럼 존경하며 독립운동에 관심이 많은 여성으로 미 사법 당국의 조사결과 무혐의로 기소도 되지 않았다.

일각의 음모를 역사적 사실로 규정하고, 게다가 포토샵을 이용해 교도소에서 죄인들이 사진촬영을 하는 것처럼 이승만과 김노디 사진을 합성했다.

또 CIA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승만을 "개인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는 식으로 원문과 다르게 주요 내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자의적 번역을 통해 평가하는데, 이런 왜곡은 평가 이전의 문제다.

박정희 시대 경제성장의 배경을 다룬 '프레이저 보고서-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에서는 박정희에 대한 성토가 이어진다.

프레이저 보고서는 1978년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국제기구소위원회가 박동선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게이트' 사건을 조사해 작성한 문건이다. 여기서도 원래 프레이저 보고서는 박정희의 경제발전에 대한 헌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부분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지만, 백년전쟁은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경제성장이 미국의 친미국가 개발지원 전략 때문이라고 묘사한다.

역사적 사실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역사해석의 자유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백년전쟁은 일단의 좌파세력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역사 왜곡을 통해 대한민국 주류 현대사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려는 시도를 자행한 것이다.

게다가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엔 전교조 교사를 위시한 많은 중고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별수업 형식의 교육 자료로 이 다큐를 이용했다.

영상을 본 상당수 청소년과 젊은이들은 "새로운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됐다"고 반응한다고 한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역사의식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기성세대들은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 라는 해석이 젊은 세대의 의식을 지배하게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좌파들의 거짓말은 단순히 역사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열과 혼란의 밑바닥에는 이들의 사실 왜곡과 집요한 선동이 자리 잡고 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이 발생한 지 3년이 흘렀지만 당시부터 시작된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거짓 선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좌파 진영의 원로모임인 원탁회의에서 좌장 역할을 하는 백낙청 씨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천안함에 대한 재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혹 세력들은 천안함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모아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까지 제작했다.

이 영화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선을 보였다. 이 외에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식으로 협박했던 광우병 촛불시위와 제주 해군기지 반대 관련 영상도 좌파 예술인들의 손으로 제작됐다.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영상들은 마치 사실인양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후 조작 시비라도 일면 이들은 '창작의 영역'이라고 변명한다.

역사에서 관점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 위에 설 때만이 해석의 자유도 있고, 치열한 논쟁도 가능하다. 우리 사회 일각의 좌파들이 앞으로도 비뚤어진 역사 인식 위에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분열을 피할 수 없다.

북한 중심의 통일을 추구하는 종북좌파가 아닌 온건한 좌파나 사회민주주의 세력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얼마든지 함께 토론하며 논쟁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에 기초하지 않고 왜곡과 과장으로 점철된 백년전쟁 같은 거짓 '꼴라주'에 집착한다면 결국 레닌이 말한 '쓸모 있는 바보들'로 자신들이 전락하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필

'無信不在'의 교훈

황선용
·본회 회우
·전 한국경제 편집부국장

하이델 베르흐(Heider berg) 대학 철학과 교수 야스퍼스(Jaspers)는 '현대의 정신적 상황'이란 논문에서 두 차례에 걸친 무서운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은 서로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개탄한바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서로 못 믿고 사는 것은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관계적 몰락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전쟁을 겪으면서 매우 잔인해 졌고 탐욕, 증오, 부정직, 불순결, 억지와 폭력이 난무했다. 지난 100년 사이에 탐욕이나 전쟁으로 무려 2억 8000만 명이나 죽어갔다.

연암 박지원(朴止源)의 '담연정기'(澹然亭記)에 보면 물가에 사는 청장(靑莊)이라는 물새와 도하(淘河)라는 물새의 이야기로 탐욕, 이기주의의 인간상을 풍자한 대목이 나온다.

'도하'라는 물새는 언제나 진흙탕과 뻘을 헤집고 다니며 쉴 새 없이 먹이를 찾아 헤맨다. 그러는 사이에 깃털이나 발목 부위 까지 더러운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종일 고생을 해도 제때에 먹이를 얻어먹지를 못한다.

그러나 '청장'(해오라기)은 맑고 깨끗한 물가에서 날개를 접은 채 종일 한 자리에 서 있다. 한번 자리를 정하면 종일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물고기들이 모르고 그 앞을 지나갈 때면 잽싸게 고개를 숙여 고기를 잡아먹는다고 현실의 정객들을 비유해서 풍자했다.

욕심을 내어 영리를 찾아나서는 자에게는 먹이는 멀리 달아나고 욕심을 버리고 자기분수를 지키는 자에게는 구하지 않아도 먹이가 찾아온다는 뜻이다.

권력이든 명예든 쟁취의 대상이 되어서는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을 뿐만 아

7면으로 이어집니다.

“먹물은 스러져도 正義는 살아있다”

‘한국전 순직 종군기자 기념비’ 건립記

이긍규
·전 한국기자협회회장
·전 국회의원
·전 신아일보 논설위원

자료수집-비용모금등 수많은 난관
청와대-재계-언론계 힘모아 극복

1976년 제15대 한국기자협회 회장 당시 나는 6·25동란에 파견됐던 4백명이 넘는 특파원중 18명이 순직, 젊은 나이에 타국에서 산화한 ‘순직 종군기자 기념비’를 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순직 종군기자 기념비 건립을 추진, 완성하기까지는 애로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종군기자 명단만해도 동란당시에는 우리 국방부에 외국특파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방부 정훈국이 없다시피하여 참전16개국의 사령부에서 각기 자국특파원들을 관리했고, 각국 사령부에서 관리했던 자료들을 수집, 보관했던 서울신문 조사국마저 4·19혁명당시 화재로 소실되어 찾기 힘들었다.

그러나 다행히 1976년 당시 시사통신 東京특파원이었던 申和植선생이 東京프레스클럽 회장으로 재직하고 계셔서 450명의 종군기자명단과 그들의 생사, 현직에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내주었다.

이정보에는 윈스턴 처칠의 아들이 한국전 당시 영국에서 파견된 종군기자였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분이 낙동강 전투 취재중 총탄을 맞아 발목이 절단되었으며 런던타임즈 편집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다.

기념비를 제작, 건립하는데에는 막대한 자금과 장소가 필요했다. 당시 기자협회비는 월 5백원으로 협회보 발간비와 직원 봉급을 주는 것도 빠듯했다. 그래서 일은 저질러놓고 볼셈으로 6월 내무부산하 ‘기금모금 승인위원장’이었던 張基榮 한국일보 사주를 찾아가 건립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승인을 요청했더니 쾌히 승낙, 회의를 열어 허가를 해주었다. 이어 몇몇 신문사 문화부기자들을 초청하며 조각가중 어떤 분을 모셔야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를 상의한 결과 이구동성으로 홍익대 崔起原교수를 추천했다.

생면부지였던 崔교수를 수차례 찾아가 설득, 상의한끝에 무료봉사키로 의기투합하고 둘이서 건립장소를 찾아나서기 시작했다. 이리저리 헤매던중 池甲鐘 金희중(시사통신 사장)씨등 한국 종군기자분들을 만나, 휴전협정 당시 외국특파원들의 취재, 보도 장소가 文山에 있는 통일공원앞 철도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철도 위에는 화물객차가 늘어서있었는데 이 화물객차안이 종군기자들의 숙소겸 편집국인 셈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에 ‘순직종군기자 기념비’를 건립하는 것이 의의가 있겠다 생각하고 건립을 확정했다.

장소가 결정되자 기념비의 설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문제였다. 왜냐하면 순직한 18명의 종군기자중 미국기자 7명, 영국기자 4명 등 17명이 외국기자들이고 한국종군기자는 韓규호씨 한분뿐이었기 때문이다.

주춧돌은 텔레타이프(teletype)형태를 취하기로 하고 打電을 받는 종이가 텔레타이프 윗면에 나와 휘날리는 형태를 갖춰야 종군기자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구리를 기본재료로 쓰기로 확정, 설계했다. 그런데 그 구리의 구입이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구리 27톤을 국방부를 통해 탄피를 구하면 되겠다는 단순한 생각에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접촉, 상의했더니 탄피를 구하려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것도 그당시 군수물자 사정을 감안할 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

파주 통일공원에 세워진 ‘한국전 순직 종군기자 기념비’

구리문제가 난관에 부딪치자 그해 9월부터 柳赫仁 청와대 정무수석을 찾아나섰다. 유수석은 동아일보 정치부장 출신으로 朴正熙대통령에게 세상의 쓴소리들을 가감없이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해 12월 하순 유수석으로부터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연락이 왔다. 황급히 청와대로 들어갔더니 박대통령께서 금일봉을 주면서 “나하고 만난 것을 신문에 써도 되느냐?”하고 묻기에 나는 “제가 청와대를 다녀갔다는 사실은 기자들이 다 알게 된다”고 답하자 林芳鉉대변인에게 “서울신문에 보도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협회에 출근하자 太完善무역협회장(前경제부총리)이 지하에있던 프레스다방으로 직접 찾아와 만나자고 해 만났더니 “종군기자 기념비 제작비용 전액을 무역협회,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 세단체가 모금해서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언론계의 체면도 있고 하니 전부는 말고 일부의 비용은 신문협회가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는 당시 신문협회 회장이었던 金鐘圭서울신문사장, 부회장인 方又榮조선일보사장, 金南中전남일보사장 등 세분을 찾아가 이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조선일보 방우영 사장께서는 매우 잘한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모금에 성의를 베풀어 주셔서 순조롭게 건립기금을 조성할수 있었다. 그런데 자금이 마련되니 이제는 27톤의 구리를 구할 길이 막연했다.

다행히도 때마침 崔起原교수가 불교계에서 충남 천안에 세울 예정이었던 동양최대의 座佛상을 건립하기위해 전국고물상들로부터 구리를 사들이고 있었는데 아직은 수요량이 부족해 착수하지도 못하고 있으니 그 구리중 일부를 사서 쓰면 가능하다는 정보를 주면서 “그 열쇠는 전국불교신도회장이신 金成坤의원(쌍용그룹회장)의 사모님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성곤의원 자택을 찾아가 설득, 협조를 요청한 끝에 허락을 받아 그 구리를 원가에 구입할 수 있었다. 이같은 구매가 가능했던 것은 마침 崔교수가 ‘천안좌불상’의 설계, 제작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36년전 늦가을, 초겨울에 시작한 비문작성은 언론계 원로이셨던 洪鐘仁조선일보 논설고문, 崔錫采 대구매일회장, 柳光烈 한국일보주필 세분을 모셨는데 비문작성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는 최석채회장께서 洪논설고문과는 비문 글을 같이 쓸 수가 없다는 것. 이유인즉 洪논설고문과 논설위원실에 함께 근무할 당시, 글을 쓰면 洪논설고문께서 마구 뜯어고치는 악습을 갖고 있어서 그분과는 어떤 작업도 하기가 싫다는 것이다. 그래서 궁리 끝에 세분이 오시면 洪논설고문만 따로 영접하여 프레스다방에 커피를 특별주문하고 사람들을 초빙하여 담소토록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랬더니 崔회장과 柳주필께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우리언론계의 선비정신, 즉 정의, 박애, 청빈생활을 염두에 두고 비문작성에 최선을 다해주셨다. 두분께서 작성한 문구중 “먹물은 스러져도 正義는 살아있다”는 구절은 우리 선대부터 내려온 붓文化와 서양 텔레타이프의 잉크를 조화시킨 뜻을 담고있다.

끝으로 나와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게 협조해주신 당시 李光杓청와대 홍보비서관(前문공부장관)의 노고를 잊을 수가 없다. 중앙일보 외신부장 출신이었던 이장관은 초청될 종군기자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의 방한 비행기편은 물론 숙소 안내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소리소문없이 뒷바라지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었다.

이런 일을 하기위해 이장관께서는 초청주관을 國際文化協會로 정하고 이사장을 洪性哲씨(前보사부·내무부장관)로 교체했는데 그 이유는 洪장관이 마침 인천상륙작전 당시 ‘임진강전투’에 해병대장교로 참전, 처절한 전투를 치렀기 때문에 6·25당시의 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들었다.

이장관의 이 같은 세심한 배려는 방한했던 종군기자들이 새마을 성금을 갹출하여 전달하는가하면 그들이 귀국한 후에는 자기 나라의 신문에 ‘한국을 소개하는 칼럼’을 수회에 걸쳐 시리즈로 기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념비는 1977년 1월에 완성되어 날씨가 추운 3월을 피해 4월27일 뜻깊은 제막식을 가졌다.

6면에서 이어집니다.

니라 갖고자 애쓸수록 먹이는 멀어진다는 것을 말해 준다.

무신부재(無信不在)라고 했던가. 서로 믿고 살 수 없는 사회는 존재 할 수 없다. 멀리는 그만두고라도 가까이에서 우리는 절실히 보고 체험했다. 욕심과 권력과 억압으로 정치한 나치가 1945년 5월에 붕괴되고 억압과 폭력의 일본 제국주의가 1945년 8월에 막을 내렸으며 권력으로 다스리던 소련도 1990년에 붕괴돼 크렘린 광장의 붉은 깃발이 내려졌다. 그런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우리나라에 무슨 귀신이 씌워져서인지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지고 부정직해 졌는지 모르겠다. 야스퍼스 교수가 말한 것과 같이 서로 믿지 못한다는 것은 상대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망한다. 이것이 공동 관계적 몰락인 것이다. 지금 세계는 온통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디자인하기에 바쁜 형국이다. 증오(憎惡)를 멈춰야 할 때다. 우리 모두 새로 태어나고 새로 출발 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새 정부가 탄생하여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국사를 걱정하고 나라 살림을 맡아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희망의 태양이 눈부시게 온 누리에 비춰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알려졌다” “전해졌다” 추측기사 난무

‘윤창중사건’ 비정상적인 보도행태 ‘팩트’보다 국민감정 부추기기 인상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박근혜 대통령의 첫 방미를 수행했던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가이드(인턴)’ 성추행 의혹은 신문에겐 초대형 먹잇감이었다.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먹칠하는 윤 씨 사건을 도배질했다. 중앙일보 박승희 워싱턴 특파원은 16일 ‘현장에서’란 칼럼에서 “대통령 취임 후 정상회담을 수행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나라망신을 시킨 것도 모자라 이차적으로 벌어지는 언론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그들(미국경찰)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부끄러운 단면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신문들은 ‘알려졌다’와 ‘전해졌다’는 기사를 대량생산했다.

‘윤창중 문제는 박근혜 문제’

신문들은 여러 명의 낙마로 부실한 인사 선구안을 드러낸 박대통령의 문제점과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청와대의 위기관리 부재를 집중 부각하면서 ‘윤창중의 문제는 박근혜의 문제’라고도 썼다. 많은 매체들이 미국 경찰의 독립성을 모르고 워싱턴 경찰청이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아 지휘한다는 기사를 주고받으며 써서 다른 매체의 비판도 받았다. 충격파는 교포사이트 ‘미시USA’ 게시판의 ‘윤창중 성폭행’이 SNS로 파급되면서 더욱 커졌다. 지금 삭제된 글에는 ‘대통령 흠집내기가 아닙니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은 ‘성폭행설’ 폭탄은 국민감정에 불을 붙이며 취임 석 달인 대통령 앞에서 작렬했다.

중앙일보는 5월14일 ‘박근혜, 윤창중 사건 본질 직시해야’ 사설에서 “이 일은 윤창중이라는 ‘개인의 과오’로 그치는 게 아니다. 여러 요인이 얽힌 부실의 종합작품이다. 대통령 외국순방 중 대변인이 그런 충격적인 일탈을 저지를 정도로 청와대 기강은 풀어져 있다. 이 일을 계기로 이남기 수석이 지휘하는 홍보수석실 내에 있었던 불협화음에 관한 얘기들이 나온다. 대통령은 제한된 선구안을 고집하지 말고 후보 인물에 관한 평판에 귀를 열어야 한다. 나홀로 인사를 버려야한다. 윤창중 사건을 보면 청와대가 북한 핵개발을 비롯한 안보문제와 엔저와 저성장으로 압축되는 새로운 경제의 도전 등의 과제들을 돌파해낼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든다.

윤창중이야 국격 훼손 정도였지만 안보나 경제위기는 국가의 명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선일보는 ‘그런 사람인줄 몰랐다 인사 자책 되풀이하지 않으려면’이라는 17일 사설에서 “박 대통령은 정권 안팎에서 다양한 인사 추천을 받아 이들에 대한 검증을 거친 뒤 적임자를 고르는 게 아니라 본인이 평소 눈여겨봤던 사람을 골라서 검증 지시를 내리는 방식의 인사를 해왔다. 인사 시스템을 강화하려면 대통령의 마음속 칠판에 적혀 있는 이름이 타당한 근거를 갖고 올라온 인물인지를 대통령 스스로 검증해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와 한겨레는 윤 씨에게 미국에서 조사 받으라고 사설로 촉구했다. 동아는 15일 “나라 망신시킨 윤 씨는 보호할 필요도 없고 보호해서도 안 된다”는 초법적 주장을 하면서 “윤 씨는 미국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피해 여성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자신을 발탁했던 박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고 썼다.

한겨레도 11일 “윤 씨를 이른 시일 안에 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 미국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게 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그것이 가장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11일 회견에서 “재수가 없게 됐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변명을 해봐야 납득이 되지 않으니 빨리 워싱턴을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남기 홍보수석 말에 “저는 잘못이 없는데, 왜 일정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해명을 해도 이 자리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13일 사설에서 “윤 전 대변인의 해명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수두룩하다.

자신을 수행한 인턴 여직원의 업무 미숙을 여러 번 질타한 게 마음에 걸려 위로의 술자리를 가졌고, 격려 차원에서 인턴 여직원의 허리를 툭 쳤을 뿐이라며 ‘문화적 차이’ 운운했다”면서 “물론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무조건 그의 말을 배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언론이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마녀사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너무도 억측 기사가 많이 나가서 정말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윤 씨 글의 스타일까지 도마에

윤 씨의 성격과 글의 스타일까지 사설의 도마에 올랐다. 동아는 11일 “윤 씨는 대변인이 되기 전 칼럼과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야당 후보를 지지한 새누리당 출신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창녀’라는 표현을 썼다.

말과 글을 절제하지 못한 윤 씨는 끝내 행동도 절제하지 못해 박근혜정부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공격했다. 한겨레도 “윤창중 씨는 언론계에 있을 때부터 막말과 망언으로 악명을 떨쳤다. 그는 입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행동도 추잡하기 짝이 없었다.

박 대통령이 세간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를 기용한 뒤 더욱 기고만장해졌고, 권력자의 사랑에 도취해 날이 갈수록 안하무인이 됐다”고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반면 조선은 “윤 씨는 개성이 강한 칼럼으로 나름대로 평판을 얻은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첫 인상이나 그 사람의 주장이 마음에 든다고 검증 없이 믿고 보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다”고 인사 실패를 지적했다.

윤 씨는 우익 논객으로 우파정권 수성의 공신이다. 무늬만 보수인 논객들이 좌파의 공격이 두려워서 몸을 사릴 때 그는 직설적인 논조로 절찬을 받았다. 인간성과 글은 상관이 없다. 좌파들에겐 눈엣가시였던 그는 운명의 수레바퀴에 치였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할 정도로 적이 많았다. 윤창중 사건은 전모가 밝혀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밝혀야 할 것은 서둘러야 한다.

청와대 기강 해이, 물과 기름이 섞인 듯 대변인의 일탈을 못 막고 조기귀국 지시설이 나온 홍보수석, 정무수석과 비서실장, 주미대사, 한국문화원장 등은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어야 했다.

‘종북과의 전쟁’ vs ‘정치개입’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으로 촉발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검찰 소환은 대선개입 논란을 낳았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2011년 8월 취임 때 “검찰은 사정의 중추기관, 체제의 수호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적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부정부패와의 전쟁,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금 ’종북의 해방구’라는 인터넷에서의 국정원 존재는 대북심리전으로도 긴요하다. 신문들의 논지는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2일자 사설 ‘5년 주기로 망가지는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원 전 원장의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정권이 바뀌는 5년 주기로 치러온 홍역을 또 치르고 있다.

지금의 여당과 야당은 집권하면 교대로 국정원을 허물어뜨리는 똑같은 일을 경쟁하듯 해 왔고 그 결과 국정원 핵심 기능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권 이해에 따라 정권 입맛에 맞춰 국정원을 뜯어고치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나라의 발등을 찍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는 1일 사설 ‘점점 짙어지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서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회 산악회 북한산 둘레길 탐방

대한언론인회산악회(회장 정운종)는 지난 5월 28일 북한산 둘레길 1,2구간을 탐방했다.

비가 내린 탓인지 11명의 회원만이 참석했지만 초여름 단비를 맞으며 신록의 숲속을 헤쳐 가는 기분은 상쾌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아카시아 꽃 향내 그윽한 둘레길을 걸으며 2시간 남짓 나눈 환담도 즐거웠고 우이동 ‘옛골토성’ 오리 삼겹살에 곁들인 시원한 맥주가 산행 삼락의 진미를 더해준 하루였다. 대한언론인회 산악회는 앞으로 2개월에 한 번 씩 둘레길 2~3구간을 탐방하기로 했다.

이번 둘레길 도보산행에는 강진형 김세경 나용경 안종우 윤익한 이상호 이우진 장 옥 정운종 한양인 황귀근 등 11명이 동참했다.

글·사진 = 이상호 사이버위원장

‘윤창중’보다 더 역겨운 TV 대담프로

‘나라망신’ 떠벌리며 더 망신시켜 오열하는 가족모습 방영에 아연

방송시평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
·전 KBS LA특파원
·수필가

처음에 알려진 윤창중 사건의 골자는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 등 4개의 스케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날(5월 7일) 밤, 윤창중 대변인이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여자 인턴과 호텔에서 술을 마시고 성추행을 했으며 다음 날(8일) 새벽에 그녀를 호텔방으로 부르는 등의 추태를 벌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윤 대변인은 경질 됐다.〉는 것이었다.

신이 난 듯 호들갑

게으른 탓에 5월10일 오전 10시쯤에야 TV조선에서 관련 보도를 처음 시청했다. 그리곤 화들짝 놀랐다. 채널을 돌렸다. 종편들은 난리였다. 일이 터진 걸 신나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위기였다. 기다렸던 것을 얻은 양 떠들었다. 야당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호들갑이었다. 뭐가 그리 급한지. 아직 사건의 실체와 전모가 밝혀 진 것도 아닌데 말이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토요일인 11일에 뻔뻔하고 답답한 기자 회견으로 사태에 불을 질렀다. 입이 열 개라도 말할 처지가 아닐 터인데 길고 장황한 변명이 뻔뻔스러움의 극치로 느껴졌다. 비루해 보이기도 했다. 말을 들어 보면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이 드러난다는 게 딱 맞는 것 같았다.

“술 마셨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벌 받겠습니다.” 그랬으면 될 일을 변명과 자기 합리화 그리고 상대 폄하를 늘어놓다니 말이다.

방송들은 신이 났고 소위 정치 평론가니 뭐니 하는 사람들은 춤을 추듯이 떠들어 댔다. 친구들 가운데는 방송들이 미친 것 같다고 비아냥거렸다. 괜히 민망했다. 방송기자였던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선정성과 포퓰리즘. 죽은 시체를 물고 늘어지는 하이에나 같은 방송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다.

시평을 쓰기로 작심했다. 그런데 공중파, 뉴스 채널, 종편 등 뉴스를 다루는 채널이 많은데다가 일일이 매시간 모니터 할 여건이 되지 않으니 난감했다. 편법을 쓰기로 했다. 공중파는 〈KBS 뉴스9〉을 중심으로 모니터하고 종편과 뉴스 채널 등은 적당한 시간에 선택되는 채널을 편하게 모니터하기로 했다. 이른바 무작위 랜덤 모니터라고나 할까?

방미성과 뒷전 미룬 방송

KBS는 심하지는 않았으나 이따금 선정적이고 싶어 하는 속내를 내 비치곤 했다.

〈KBS 뉴스9〉은 10일 톱 뉴스로

1) ‘성추행 의혹’ 윤창중 대변인 전격 경질 2) 경질 배경은? 귀국 뒤 연락두절 3) ‘국가 품위손상’ 향후처리와 파장은? 등의 3개 아이템으로 처리했다. 박근혜 대통령 방미소식보다 비중을 더 둔 편집이었다. 11일에도 윤창중 회견 기사 등 3건을 머리기사로 처리했으며

일요일에도 1)윤창중, ‘성추행의혹 전면부인’… 진실공방 2)청와대 또 공식사과 3) 청와대, ‘미에 조속한 수사 진행 요청할 것’ 4) 미 경찰, 호텔 바 CCTV 분석 등 4개 아이템을 톱으로 취급했다.

월요일인 13일에는 톱뉴스로 대한항공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다뤘다. 박 대통령의 사과 기사보다 앞세운 편집 의도가 의심스러웠다.

14일에는 윤창중 관련 기사가 4번째로 다뤄졌고 15일에는 9번째 아이템으로 ‘주미문화원, 1차성추행 신고 묵살 의혹’을 편집했다. 16일에도 15번째 아이템인 〈이슈&뉴스〉에서 ‘윤창중 성추행 풀리지 않는 의혹’에서 기자의 상상력이 최대한 동원됐다.

그리고 16번째 아이템으로 ‘직장내 성희롱 93% 참는다’는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를 소개 했다. 직장에서 성희롱이 빈발한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내용이었다. 성희롱·성추행 사회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가?

17일 뉴스에서도 7번째 아이템으로 피해학생 父, 엉덩이 만졌다고 신고 했겠나?라는 기사에 이어 8번째로 미 한인목사 ‘미성년자 성매매시도하다 체포’기사를 다룸으로써 성 관련 범죄가 일반화 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KBS 뉴스9〉은 18일 북한이 연달아 발사체를 쏘아댄 이후 지겨운 윤창중 관련보도에서 일단 벗어났다.

종편 대담프로 문제 심각

종편 등의 윤창중 관련 보도는 특히 대담프로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윤창중 관련 보도에 이어 탤런트 박시후 성추행 이야기와 원주 별장 성 상납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다루어 한국이 마치 성 추행 공화국인 것 같은 이미지를 심었으며 나라망신이라고 떠벌리는 것 자체가 나라망신을 촉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한 프로그램에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라는 앵커의 멘트는 “의혹을 점점 키우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허태열 비서실장이 “무조건 잘못된 일입니다. 숨기지도 감싸지도 않겠습니다.”고 사과한 5월12일에는 윤창중 체포및 처벌과 관련해 기자의 가설과 가정이 총 동원된 소설 같은 이야기가 보도되기도 했다.

누가 돌을 던질 것인가?

기자들의 윤창중 집앞 지키기와 잠복 취재는 고통스런 일이겠지만 보도는 위험한 수준이었다.

김포의 윤창중씨 자택 분위기를 전하는 기자들의 리포트는 답답하고 안타까웠다. 집앞을 지키고 드나드는 사람을 체크하고 집안에는 아들과 누가 있다든지, 법률문제는 작은 아들과 상의했다든지, 부인이 시장을 다녀왔다 든지 하는 등의 보도를 굳이 해야 하는 것인가? 윤창중이 파렴치범이니 가족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

누가 뭐래도 가장 가슴이 아픈 사람은 윤창중씨의 부인일 것이다. 외출하는 부인에게 기자들이 집요하게 질문공세를 펴자 길에 주저앉으며 오열하는 부인의 모습은 처절했다.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그리고 이런 장면을 자랑스런 듯이 TV에 방영하는 양식은 무엇인가?

너희 중에 누가 저 부인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되돌아 봐야 한다. 윤창중, 그는 어찌해야 하나?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나쁜 생각이라도 할까 봐 걱정 된다는 이웃집 아주머니의 말도 무겁게 들렸다.

안하무인의 앵커들

일부 앵커들의 고압적이며 꾸짖고 가르치는 식의 말투는 역겨웠다.

5월13일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전하는 MC는 사뭇 격앙된 음성이었고 승전고라도 울리는 듯이 격한 모습이었다. 기자는 어느 경우에도 흥분하지 말고 이성을 지키라 했는데 말이다.

그의 멘트다. “모든 공직자들이 스스로의 자세를 다잡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멋진 멘트를 던졌다고 생각할 그에게 “방송에 나오는 모든 기자와 MC 그리고 출연자들에게 스스로의 자세부터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답글을 주고 싶다. 그리고 윤창중 전 대변인의 잘못에 신나하고 잘난 척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스런 듯이 떠벌리는 사람들을 볼 때 “어휴, 저들이 참 싫다.”는 웅얼거림이 저절로 터져 나왔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마구 꾸짖고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고 웃으며 시시덕거리는 농담 섞은 말잔치에 역겹기도 했다. 특히 윤창중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재목이냐고 목청을 높이는 이에게서는 내가 청와대로 가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맞는다고 외치는 출세욕과 속물근성이 보이는 것 같아 딱하기도 했다.

어느 교수란 이는 윤창중 사건을 이명박 정권 초기의 쇠고기 파동때의 촛불시위와 비교해서 시청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자기 생각에 몰두하다보면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던가? 먼저 자기 모습을 겸허히 돌아보라는 충언을 던지고 싶었다.

윤창중 성추행 사건관련 보도와 대담프로는 5월 13일 최고조였다. 어느 시간이나 TV를 틀면 특히 채널을 종편으로 돌리면 거의 대부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판단력이 뛰어남과 해박함을 늘어놓고 있었으며 농담으로 웃으며 떠벌리는 장면들이 나타나곤 했다. 대충 훑어본 결과로는 KBS 등의 공중파 방송들이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보였고 YTN 등의 뉴스 채널에서도 두드러진 문제를 찾지 못했다.

종편은 아주 심했다. 종편 중에 JTBC는 예외로 보였으나 MBN을 포함한 종편은 모두 심각하게 오염된 수준의 방송이었다. 그 중에서도 TV조선과 채널A가 문제 방송의 선두다툼을 하고 있는 듯 했다.

5월16일 6시15분 MBN의 뉴스 와이드를 모니터하고 있었다. 또 재탕이었고 상상의 나래로 장식하는 방송이었다. 전문가라는 이의 장광설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 때 화면 하단에 나타난 자막이 촌철살인이었다.

“부끄러운 이야기 그만 했으면 합니다.” 쾌재를 불렀다. “나도 그렇다.”

10여 일 동안 끌어온 윤창중 사건은 북한이 발사체를 쏜 5월18일부터 톱의 자리에서 밀려났다.

시시비비(是是非非)가 바탕 돼야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다. 그런데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언론으로서의 방송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모든 일은 진실을 바탕으로 봐야하고 무엇이든지 지나치든지 모자라면 흠이 될 수밖에 없다. 진실을 바탕으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야 한다.

이번 사건 보도에서 방송은 국격(國格)을 논하면서 결과적으로 국격을 해치는 데 일익을 담당했고 대통령 방미성과를 절감시켰다고 난리를 피면서 대통령 방미성과를 희석시키는 데 큰 몫을 행하지 않았던가? 성추행을 마구 꾸짖으면서 성적 호기심을 자극했고 선정성을 키우는 결과를 빚지 않았던가?

인간 윤창중 그는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고 나라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다. 그는 이미 벼슬자리에서 쫓겨났다. 남은 일은 행위에 합당한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의 몫이다. 어느 경우에나 언론, 방송은 냉정하고 바른 자세를 지켜야 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도 되새겨봐야 한다.

기자, 홍보맨, NGO 55년… "인간의 숲에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59〉 회우초대석

朴東銀

인터뷰 : 글 ·

실버파이팅 첫 여성 회우

"아이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맘껏 뛰놀아야 발달하는데, 공부만하라고 다그치는 것도 아동학대입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죠"

朴東銀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 한국위원회 부회장은 "세상이 변한 만큼 이제는 어린이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데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문을 연다. "이제는 빈곤층 어린이를 돕는 차원에서 어린이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이 부모와 기성세대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본회 박동은 회우(77)를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청운동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세계 가정의 날이자 스승의 날이다. 6층에서 내려다보이는 청운초등학교는 박 회우의 모교. 운동장에 뛰어노는 아이들의 발랄함에 초록빛 싱그러움이 묻어난다.

실버파이팅 연재 4년 11개월 만에 첫 여성 회우와의 인터뷰도 신록처럼 새롭다. 방문한 시간 비서실 여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터라 커피를 직접 타 내온다. 희수(喜壽)를 넘겼어도 건강미가 넘친다. 이웃집 아줌마처럼 소탈하다. 국제적인 아동 구호 전문가답게 달변에 영어가 자연스럽게 뒤섞여 나온다. 사업 설명에 오류는 없는지 연신 인터뷰어의 메모지를 확인하며 첫 째, 둘째, 확인하며 말을 잇는 여성 특유의 꼼꼼함도 엿보인다.

-아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는?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는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네 가지 기본 권리를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ren)을 채택했습니다. 어린이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시한 획기적인 협약이죠. 우리나라를 비롯한 193개국의 비준을 받은 어린이 인권조약입니다." 1990년 9월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어린이를 주제로 한 '세계아동 정상회담'이 뉴욕에서 열려 열악한 세계 아동의 삶을 개선키 위한 7개 목표가 세워지고, 유엔총회는 각국에 이를 추진키 위한 NPA(국가행동계획서)를 제출토록 결의한 바 있다. 세계아동정상회담은 2000년 9월 UN총회에서 채택한 8개항의 새천년 개발목표(MDG)의 디딤돌이 됐다.

-아동학대, 성폭행 등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무색하게 하는 사건들이 터지고 있다

"최빈국은 아동의 생존권이 풀어야 할 과제이고, 선진국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밖에 내놓을 수 없는 환경이 문제지요. 한국의 경우 학교폭력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소외감도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차별 없는 구호의 정신'으로 전 세계 어린이, 특히 개발도상국 빈곤층 어린이를 지원하는 유엔기구 유니세프는 1946년 12월 11일 창립됐다. 한국과는 1948년부터 관계를 맺기 시작, 1950년 3월 정부와 기본 협정을 체결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박 회우는 1988년 주한 유니세프 대표부 대외담당관으로 유니세프와 인연을 맺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창립의 실무를 총괄했다.

1988년부터 유니세프와 인연

-빈부격차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조직 구성과 모금활동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당시 우리사회의 모금에 대한 인식은 연례적인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군사정부가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준조세격인 모금이 고작이었죠. 주변에서는 재벌총수나 군부의 실세를 대표로 영입하거나, 정부출연기관으로 출발해야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유니세프는 자원봉사를 기본으로 시민사회에 호소하는 순수 민간기구여야 한다는 신념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는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회지도자와 전문지식인 가운데서 유니세프를 위해 봉사해줄 인사를 찾아 나섰다. VTR를 승용차에 싣고 다니며 유니세프 사업을 설명했고, 인맥을 총동원하여 사람들을 만났다. 2, 3년의 노력 끝에 유니세프를 후원하는 문화예술인클럽, 언론인클럽(김진현 회장), 사립초등학교장클럽, 어머니클럽, 변호사클럽 등 5개의 후원 클럽을 결성했다. "그 과정에서 영화배우 안성기 씨, 소설가 박완서 씨, 디자이너 앙드레 김을 친선대사로 모시게 됐다"고 한다. 두 분은 고인이 됐고, 안성기 씨는 지금도 아프리카 등을 누비며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최근엔 탤런트 김혜수씨와 원빈씨가 특별대표로 합류했다.

박동은 회우는 "쉼 없이 달려 온 삶에 여백을 갖고 싶다"고 한다.

동아일보 공채 1기로 첫발 … 공항 출입때 쓴 칼

美 유학뒤 대학·가족계획 협회거쳐 유니세프

1993년 유니세프 본부와 한국 정부 간의 승인합의서를 마련하고 이듬해 1월 1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를 발족시켰다. 玄勝鍾 전 국무총리(전 성균관대 총장)가 초대 회장에 선임 되고, 박동은 대외담당관은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발족 후 최빈국서 기부 선진국이 된 비결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DM캠페인(호소 편지를 통한 후원자 모집)을 펼쳤어요. 우리나라도 못 사는 데 왜 남의 나라 아이들을 돕느냐는 저항도 있었지만, 편지를 받은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 힘을 얻었죠"

그 뒤 유니세프카드와 선물용품 판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모금, 걷기대회, 연말 디너쇼 등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대중 모금을 통해 모금액을 늘려나갔다. 그는 "더 큰 모금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며 공격적인 전략을 폈다. TV광고, 신용카드사와 공동 캠페인 등을 전개한 결과 투자 효과를 톡톡히 봤고 모금액은 늘었다.

지원받던 나라서 지원 선진국으로

"한국위원회 출범 첫 해에 350만 달러(약 32억원)를 모금하여 지원했어요. 지난해 총 지원금은 7천543만 달러(약 816억원)로 개발도상국 지원금 세계 4위나라가 됐습니다." 1위는 일본, 2위는 미국, 3위가 독일이다. 19년 만에 모금액이 21배 늘었다. 유니세프의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기부선진국 대열에 우뚝 섰다.

"당연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위상도 높아졌어요. 본부 지원금 가운데 20%는 우리가 지정하는 나라에 지원합니다. 지정기탁국가는 북한(연간 200만 달러 지원)을 비롯하여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몽골, 수단, 예멘, 등 18개국이죠" 박 사무총장은 최빈국서 기부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한국위원회 운영은?

"유니세프 본부는 모금액의 75%를 보내라고 하지만, 우리는 86%를 보내고 있어요. 나머지 14%를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합니다." 그동안 후원회원도 35만 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그는 2005년 1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비롯해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등 총 14개 단체와 아동전문가들이 참여해 발족시킨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비영리기구(NPO) 연대

에서 희망을 보았다”

· 전 동아일보기자
· 전 대한가족협회 부회장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부회장(현)

사진 =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칼럼니스트)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되어 지금까지 맡고 있다.

이밖에도 연간 모금액 5억원 이상 단체의 연합인 한국NPO 공동회의(32개 단체)의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또한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의 이사로서 정부와의 소통 및 동반 관계 구축, 한국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기금)를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다.

요즘은 정부가 먼저 NPO를 찾아와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는 등 NPO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한다는것.

인생고비 때 마다 새로운 길 선택

-직함이 부회장이신데?

“지난해 4월 기구개편과 함께 송상현 ICC(국제형사재판소)소장이 회장으로 선임되고, 부회장으로 선임됐어요.” 그는 “NGO활동은 권위의식을 없애고 창의력을 발휘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능력을 키워갈 수 있어서 적성에 맞았다.”고 회고한다. 그동안 펼친 아동구호사업의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1982년), 제1회 YWCA 한국여성지도자상(2003년), 비추미여성대상 해리상(2008년) 등을 수상했다.

문화부, 사회부서 열심히 뛰어

경기여고와 숙명여대 영어영문과를 졸업한 박동은 회우는 동아일보 공채 1기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 신문기자가 적성은 맞았으나 남성들 틈새서 적응하기란 그리 쉽지 않았다고 한다.

“영어를 활용할 기회가 많은 외신부에 가고 싶었으나 밤샘 근무에 여기자는 제외 되어 꺼리더군요. 문화부와 사회부 기자로 열심히 뛰었고, 김포공항 출입 때 ‘나그네의 눈’이란 칼럼을 연재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쪽 진 외국 여자, 바늘 없는 주사기, 동두천 위안부 등 공항을 오가는 특이한 이들을 관찰해 쓴 ‘기자 수첩’으로 인기를 끌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때 마다 그는 순탄하고 평범한 길 보다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9년 6개월 만에 신문사를 나와 유학길에 올랐다. 미국 오리건대학에서 신문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귀국하여 1972년부터 3년간 성균관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과 시사영어 강의를 했다. 유신헌법의 소용돌이 속에 시위와 휴강으로 캠퍼스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대학 강단을 떠나 1976년 대한가족계획협회 홍보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가족계획협회 업무 대부분은 아이 덜 낳게 하자는 것과 남아선호관을 없애자는 대국민 홍보였어요. 개인적으론 개발도상국일수록 여성들이 아이 낳는 데 일생을 보내다가 자기 계발과 노후 준비를 못 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강했어요. 가족계획을 잘 세워 각 가정 형편에 맞게 낳아 훌륭하게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박동은 부회장(당시 사무총장)이 2007년 4월 봉사 차 방문한 우간다 서남지역 카멩끼 마을의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과 어울리고 있다.

럼 인기 끌어 한국위 창립

“쉼 없이 달려 온 삶, 여백 갖고 싶어”

시대별 인구정책 표어와 출산율을 대비해보면 가족계획은 가장 성공한 정책 사례다. 정부는 60년대 들어 인구 억제 정책을 대대적으로 폈다. 가족계획협회가 발족되고 피임법이 보급됐으며 콘돔이라는 생경한 피임 도구가 등장해 감췄던 성(性)이 드러나는 등 사회적 파장도 컸다.

60년대 초에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표어와 더불어 ‘3-3-35 운동(세 자녀를 3년 터울로 낳아 35세에 단산)’을 펼쳐 10년 뒤 가임(可妊)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4.5명으로 떨어졌다.

70년대 들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를 채택, 두 자녀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남성들의 정관(精管)을 막는 수술을 권장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장에서 시술 희망자에게 훈련을 면제해주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박 회우가 1976년 홍보부장으로 입사했을 때 한 가정의 자녀수는 평균 2.8명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나타냈다.

“당시 현장조사 결과 아이 둘 정도를 낳는 것은 국민 정서상 상당히 허용되는 부분이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남아선호사상을 없애는 것이 일차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표어를 채택했지요.” 그 뒤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사랑 모아 하나 낳고 정성 모아 잘 키우자’는 ‘한 자녀 갖기 운동’으로 1986년에 이미 합계출산율이 1.5명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지금은 저출산을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저출산은 이미 70년대 말부터 국제적 트렌드였다”면서 “인구정책은 유연성을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면 줄어들 수 있도록, 줄어들면 늘어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요즘은 독신이 자연스럽지만 예전에는 여자 혼자 산다는 게 어려웠을 텐데요?

“젊어서부터 결혼을 먼 훗날 남의 일처럼 생각했어요. 무조건 결혼이 아니라 가정을 가질 준비가 된 사람들만이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기자, 홍보맨, NGO의 공통점은 사람만나는 일입니다. ‘인간의 숲’에서 희망을 보았지만, 인연이 없는지 짝은 못 만났죠(웃음). 부모님도 독신에 관대하셨어요.”

경기여고 영어 선생님이었던 부친의 영향으로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했고, 동아일보 공채시험도 영어 성적이 좋아서 합격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어머니는 평양 숭의여고를 졸업한 엘리트. 박 회우는 4남매 중 고명딸.

-건강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지는 않았어도 이상은 없어요. 열심히 뛰어다닌 것이 운동이 되었나봅니다.(웃음). 2년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 아무 이상 없습니다.”

-계획은?

“그동안 개인 생활은 없다시피 바쁘게 살아왔어요. 부회장이 되면서 결재라인에서는 손을 떼었지만 NPO 활동에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NPO 활동을 많이 맡고 있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사무실에 나오고, 양평에 있는 조그마한 농장을 오가며 채소나 가꾸며 삶의 여백을 갖고 싶다고 한다.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⑯

허리통증 (腰痛)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고령자들에게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 척추전문병원이 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은 고령화에 따른 허리 통증환자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허리 통증은 척추 뼈, 추간판(椎間板·disk), 관절, 인대, 근육, 신경, 혈관 등의 기능 이상과 상호조정이 어려워짐으로써 생겨난다.

50~6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평생 살아가는 동안 80% 이상의 사람들이 허리 통증을 겪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증은 허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지의 통증과 감각저하를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흔하다.

고령자의 허리 통증은 대부분 서서히 시작되는 것이 특징이다. 고령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물론 낙상이나 비틀림, 교통사고 등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허리 통증도 젊은 사람에 비해 늘어난다. 고령자의 허리 통증은 대부분 퇴행성으로 서서히 나타나지만 그 원인은 다양하다. 따라서 치료 또한 일률적이지 않다. 고령자에게 많은 허리 통증의 원인은 허리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이 둘은 다른 병이지만 고령자에서는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전문병원에 가면 진단을 위해 엑스레이는 기본이고 고가의 MRI 촬영 등을 하게 되고 처음 약물치료로 시작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시술과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허리 통증의 진단에서 시술과 수술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이다. 학술지 내과학회지(Annals of Internal Medicine)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허리 통증 시술인 척추 경막외(epidural) 스테로이드 주사용법이 허리는 물론 다리로 퍼지는 좌골 신경통증을 감소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아 이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또한 미국의학연구소는 미국인의 경우 허리 통증으로 매년 860억 달러(약 95조원)를 쓰고 있는데 이 중 상당액이 타당성을 찾을 수 없는 치료였다고 했다.

따라서 허리 통증은 전문의가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경우가 아니면 곧 엑스레이나 MRI 촬영을 할 것이 아니라 6주정도 기다려보는 것이 좋다고 했다. 통증이 가시지 않는다 해도 곧 바로 시술이나 수술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재활의학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운동치료를 먼저 하기를 추천했다. 수술을 할 경우엔 복수의 전문의 특히 가정의나 재활전문의의 자문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백제의 문화 – 불교의 신비에 취하다

본회 봄철 야외수련
公州를 가다

대한언론인회 홍원기회장을 비롯한 회원 80명은 지난 5월 21일 봄철 야유회 행사로 충남 공주를 다녀왔다. 먼저 하루 종일 수고해준 안영순(공주시청 문화해설사회장) 이우근 두 해설사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하며 이날의 분위기와 우리가 찾은 몇 몇 문화유적지를 돌이켜본다.

공주는 잘 알려진 대로 1500년 전 백제의 신비가 서려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과 찬란한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다. 특히 백제 문주왕 1년(475년) 한산성에서 천도하여 성왕 15년(58년)까지 백제 5대왕 64년간 도읍지였던 관계로 유물과 유적이 많다는 것이 해설사의 설명이다..

먼저 찾은 공산성, 구름한 점 없는 날씨 탓인지 가족단위로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붐비고 멀리 대구에서 수학여행 왔다는 학생들이 열심히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도 진지해 보였다. 공산성은 사적 제12호로 백제시대의 토성 400m, 조선시대 석성 2,260m 성곽이다. 동서의 길이가 약 800m, 남북의 길이는 약 400m의 포곡형 형태를 띠고 있다. 성 안에는 웅진도읍기로 추정되는 왕궁지를 비롯해 백제시대 연못 2개소, 고려시대 때 창건한 영은사, 조선시대 인조대왕이 이괄의 난을 피해 머물렀던 쌍수정과 사적비, 남문인 진남루, 북문인 공북루 등이 보인다.

이어서 찾은 무령왕릉, 백제 무령왕과 그 왕비의 능이다. 1971년 발굴되었다는 무령왕릉은 연꽃무늬 또는 글자를 새긴 벽돌로 만들어져 있는 묘실이 신비스럽다. 발굴 당시 묘실에서는 왕과 왕비의 왕관, 금팔찌, 금귀고리, 묘지석, 도자기, 청동제품 철기 등 88종 2,000여 점의 유물이 나왔다고한다. 공주박물관에선 바로 이 처럼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다.

공주는 역시 10경중 마곡사가 압권이다. 태화산 기슭 맑은 계곡을 끼고 자리한 마곡사는 백제 의자왕 3년(643) 지장율사가 창건하고 고려 명종 2년 서기 1172년에 보조국사가 중건한 사찰로 보철화상이 법문을 열 때 모인 대중이 삼밭의 삼대(麻)같이 많다 하여 마곡사라 이름 지은 것이라 한다. 보물 오층석탑(五層石塔)과 영산전(靈山殿)이 돋보이고. 주위엔 영은암, 대원암, 은적암, 백련암, 부용암, 북가선암 등의 부속암자가 산재해 있어 풍광의 극치를 이룬다.

영산전의 현판 글씨는 세조(수양대군)가 매월당 김시습을 만나러 왔다가 매월당이 만나주지 않아 보지 못하고 현판글씨만 남기고 걸어서 갔다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 흥미를 더해준다. 보물 제 801호 대웅보전(大雄寶殿), 보물 제 802호 대광보전(大光寶殿), 김구(金九)선생의 은거 기념식수는 이 사찰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백범이 즐겨 썼다는 서산 대사의 선시 친필도 찾는 이의 마음을 숙연케 한다.

'답설야중거/ 불수호난행/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踏雪野中去 눈 내린 벌판을 밟아갈 때에는/ 不須胡亂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말라/ 今日我行跡 오늘 걸어가는 내 발자국이 / 遂作後人程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사찰 주변에 '백범 명상 길'이 생긴 연유를 알 만하다.

주마간산(走馬看山)격이었지만 유서 깊은 공주에서 역사공부를 새롭게 한 것은 큰 소득이었다. 특히 마곡사로 가는 도중 창밖으로 둘러본 세종시 건설현장을 보며 느낀 소회도 남달랐고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한 공산성 앞 고마나루 돌솥쌈밥집과 천안 금모래식당 정식이 구미를 당기게 했다.

글·정운종 상임이사 사진·이철영 편집위원

공주의 역사와 문화를 샅샅이 알게해준 안영순 해설사.

공주박물관앞에서 기념촬영.

공산성을 둘러본뒤 한자리에 모인 회우들.

아! 백제여, 백제여!

白民 이 학 주
·본회 회우
·전 한국경제 편집부장

오월의 공주 공산성에는
역사가 살아서 숨 쉬고 있었다
어둠을 뚫고 거슬러 더듬어 본 천년
그 옛날 화려했던 백제여

금강 곰나루 예대로 흐르고
산성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건만
600년 꽃피웠던 찬란한 문화
영광된 그날의 백제는 어디로 갔는가

산록(山麓)에 세워진 역대 관찰사의 공덕비
누년 풍상에 젖어
비문(碑文)마저 희미 하구나

쌍수정(雙樹亭)에 오르면
그 옛날 다녀가신
인조(仁祖)임금님의 고달픈 생애가
빈자(貧者)의 집 기둥에 뒤웅박처럼 걸려
마음 여린 백성의 가슴을 적신다.

어쩌다가 이괄(李括)에게 쫓겨 오시어
험한 몽진(蒙塵)길
서럽게 사시다 가셨는가

백성이 진상한 떡
얼마나 맛나게 자셨으면
절미(絶味)라 찬란 또 찬란

인조가 절미라 해서
인절미(仁絶味)의 어원(語源)이 되었다는
전설도 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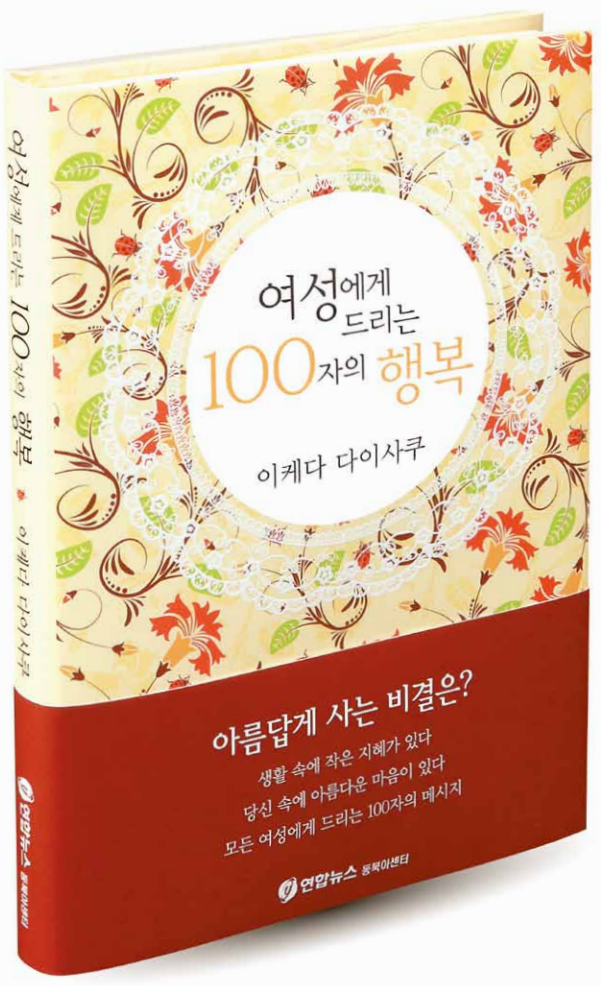
낮에 쓰면 역사가 되고
밤에 쓰면 전설이 된다던가

역사와 전설이 한데 뒤엉켜
여기 5월의 공산성 산허리에
아! 백제여, 백제여!
새록새록 되살아나 숨 쉬는 백제여!.

전국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선정

여성에게 드리는 100자의 행복

아름답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일상에서 건져 올린 반짝반짝 빛나는 삶의 지혜
모든 여성을 행복하게 만드는 특별한 메시지



"여성의 아름다움이란
외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열심히 살아가는 삶,
자기만의 목표를 찾아 한 걸음씩 전진하는 삶이야말로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아름다움이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멋진 연애와 사랑을 꿈꾼다면,
올곧게 살아가고 싶다면,
진정한 자신을 찾아내 부지런히 연마해야 한다."

이케다 다이사쿠 지음 / 값 10,000원 / 184쪽

추천사

"자신에게 당당하면서 자녀에게는 멘토로서, 남편에게는 꿈을 만들어 가는 파트너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은 워킹맘들에게 추천한다."
이수연 한국워킹맘연구소장

"여성뿐만 아니라 현대의 모든 '시시포스'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인생이라는 바위를 밀어 올리다 만나는 시원한 바람을 이 책에서 느끼기 바란다."
고민정 KBS 아나운서

"때로는 많은 내용을 가르치기보다 적절한 빼기가 더 중요하다. 이 책에는 잡다한 지식도, 어려운 용어도 없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만 깔끔하게 들려준다."
'뽀로로 아빠' 김일호 오콘 대표

전화 : 02-398-3762~8 팩스 : 02-398-3769 www.yonhapmidas.co.kr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溫故知新

'三國志'와 中華帝國主義

황원갑
·본회 전문위원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소설은 '삼국지(三國志)'일 것이다. 13억 인구의 중국보다도 5천만 인구의 우리나라에서 어찌하여 '삼국지'가 더 많이 읽힐까. 우리나라 소설 중에서 '삼국지'를 능가할 만큼 재미있는 작품이 없는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그런 까닭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표적 작가들도 오로지 돈벌이를 위해 '삼국지'를 펴낸 것이 아닌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얼마나 우리 역사를 천대했으면 유비 · 관우 · 장비는 잘 알아도 을지문덕 · 연개소문 · 계백은 잘 모르게 됐을까. 또한 제갈량 · 조조 · 손권 · 조자룡 · 마초는 잘 알아도 부분노 · 명림답부 · 석우로 · 김문노 · 흑치상지 · 고선지는 잘 모르게 됐는가.

젊은이들 역사의식 좌지우지

오죽하면 중국학자들도 한국 젊은이들이 정작 한국사 실력은 별로 없으면서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과 지명은 훤한 데 놀라고 있다. 중국의 '삼국지'는 잘 알아도 우리나라의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는 잘 모르니 이런 얼빠진 일이 다 있을까. 물론 '삼국지'를 읽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삼국지'를 읽더라도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역사의식을 좌우하는 길잡이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본다.

첫째 위 · 촉 · 오 중국의 삼국은 모두 합해서 60년도 못 간 단명한 나라였다. 위나라 46년, 촉나라 43년, 오나라 59년으로 중국 25사 가운데 단명한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록도 많지 않다. 그래서 중국인들도 별로 자랑스러운 역사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미래의 주인공이 될 젊은이들이 천년사직을 자랑하는 신라와 700년의 고구려와 백제가 아닌 50년짜리 단명 국가들이 싸우는 '삼국지'에 열광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둘째 '삼국지'의 내용은 배울 것이 없다. 전쟁과 권모술수로 이어진 '삼국지'에 빠져들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는 것은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중국에는 '젊어서는 수호지를 읽지 말고 늙어서는 삼국지를 읽지 말라(少不看水滸 老不看三國)'는 경구가 있다.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는 수호지를 읽고 강도가 될까 봐 겁나고 나이 들어 '삼국지'를 읽으면 더욱 음흉하고 교활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셋째 '삼국지'에는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다.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아마도 제갈량(諸葛亮)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의 실력은 별것이 아니다. 자기 나라가 60년도 못 가 망할 것조차 예견하지 못했다. '후한서' '진서' '위서' 등 정사에 따르면 제갈량은 유비가 죽기 전까지 군권을 장악하지도 못했다. 소설 '삼국지'에는 제갈량이 위나라 사마의(司馬懿)를 몇 차례나 죽을 고비에 빠뜨리지만 이 역시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멀다.

또 삼고초려를 한 유비에게 제시했다는 천하삼분지계도 '삼국지'에서 무능한 인물로 묘사된 오나라의 노숙이 손권에게 제시한 계책이었다. 또한 유비도 인내심이 깊고 너그러운 인물이 아니며 친아들 유선의 왕위계승을 위해 양아들인 유봉을 죽이고 처자식을 언제든지 갈아입을 수 있는 의복에 비유하는 등 냉혈한이었다.

이처럼 '삼국지'에 빠지면 권모술수에 능한 기회주의자가 되기 십상이다. 더 큰 문제는 '삼국지'를 좋아하다 보면 우리 역사는 소홀히 하고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을 좋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삼국지'는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을 중화주의자 · 사대주의자로 만드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책이다.

권모술수·사대주의 불러 일으켜

또 소설 '삼국지연의'는 진수(陳壽)가 쓴 정사 '삼국지'와는 역사적으로 다른 부분도 많은 그야말로 소설이다. 이를 일일이 밝힌 책까지 나올 정도이니 소설 '삼국지'는 말하자면 역사적 사실을 왜곡 날조한 사극 드라마와 비슷하다고나 할까.

결국 '삼국지'는 유비나 제갈공명을 배출한 중국이 위대한 나라라는 인식을 주입함으로써 중화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오염을 주변국에 퍼뜨리고 있다. 이처럼 창작도 아닌 번역 '삼국지'나 '초한지'를 써서 중화제국주의 · 중화사대주의를 부추기는 일부 몰지각한 작가가 떼돈을 벌고 한국의 대표작가라고 유명세를 타니 생각할수록 한심하기 그지없다.

대마도는 '우리땅'이어야 했다.

조규석
·본보 편집위원
·전 세계일보 논설실장

지구촌 언론포럼이 창립기념 첫 해외 세미나 장소로 대마도를 택한 것은 나름대로 의도한 것이 있었다.

일본이 집요하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해 온데다 아베정권의 노골적인 우경화 행보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회원들이 "대마도도 '우리 땅'임을 직접 현장에서 실감해 보자"는 취지였다. 많은 회원이 그런 의견을 말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5월 15일 오전 10시 40분부터 16일 오후 3시 반까지 28시간 50분 동안 대마도에 머물렀다.

우리 일행이 히타카쓰(比田勝)항에 도착 후 곧 바로 찾아 본 곳은 섬 북단에 위치한 '한국 전망대'-아주 맑은 날에는 그곳에서 부산이 보인다고 했다. 1607년에 시작된 조선통신사들의 일본 내왕은 바로 히타카쓰 항을 기착지로해서 60여 번 이어졌다. (현장 안내판).

1703년 2월에는 통신사일행 108명이 입항 직전에 폭풍우로 조난을 당하는 참사도 빚어졌다는데 현장에는 2미터 정도 높이로 세워진 위령비만이 옛일을 일깨워 주었다.

그날 오후 오보시다케(鳥帽岳), 와다쓰미(和多都美) 신사 등을 관광한 후 다음 날 오전 남쪽으로 이동해서 이즈하라(嚴原)에 도착한 일행은 수선사(修善寺)-고려문-덕혜옹주 결혼 봉축(奉祝)기념비-우국지사 최익현선생 순국현장 등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수선사 경내에는 일제에 의해 3년형을 선고받고 대마도에 유배돼 1년 3개월만인 1907년 1월에 순국한 최익현 선생을 기리는 순국비(殉國碑)가 서 있어 그나마 일본의 한 가닥 양식을 말해 주는듯했다.

대마도 도주(島主)의 후손과 결혼한 고종의 따님 덕혜옹주의 대마도방문(1931년 11월)을 기념해서 주민들이 세웠다는 기념비 앞 상석에는 조화(造花) 장미 몇 송이의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그 앞에서 여행사 가이드는 일제가 강제한 정략결혼으로 참담한 삶을 살다간 덕혜옹주의 일생을 진지한 어투로 설명했다.

우리 일행은 마지막으로 최익현 선생이 유배기간 동안 기거하다가 일본음식을 줄곧 거부한 끝에 아사(餓死)지경에서 운명했다는 현장을 찾았다. 그러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장에는 비극적 사실(史實)을 알리는 어떤 표지(標識)도 눈에 띄지 않았다.

'역사탐방'을 끝내고 다시 히타카쓰항으로 달리는 버스 속에서 우리는 '이색 행사'를 가졌다. 말하자면 '버스 속 세미나'였다. 최귀조회장의 사회로 자유 발언 토론형식으로 진행된 '버스 세미나'에서 회원들은 한일관계는 물론 오늘의 남북문제 등에 대해서도 기탄없는 의견을 토로했다.

필자는 1970년대 중후반 4년 동안 언론사 도쿄 특파원을 역임한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일본 우경화의 흐름에 대해 설명했다.

여영무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박실 전 기자협회 회장은 남북문제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두 회원은 각각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치밀한 대북 심리전을 펼쳐야한다",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남남 갈등의 해소가 가장 긴요하다"고 했다.

회원들은 대마도를 둘러보는 동안 한일관계사에 드리운 명암을 확인했다며 깊은 감회에 젖었다. 상당수 회원은 "여러 사실(史實)로 미루어 대마도는 우리 땅" 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행사 가이드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대마도에는 우리 민족의 한(恨)과 슬픔이 곳곳에 배어있다."- 대마도를 찾는 한국인의 정서로서 지금도 이어지는 그 한과 슬픔의 근원은 어디일까. 역사의 가혹함이다.

대마도가 독도처럼 우리 땅임을 증거하는 사료(史料)도 적지 않다. 1750년대 제작된 '해동지도'에는 "백두산은 머리고, 대관령은 척추며, 영남은 대마를, 호남은 탐라를 양발로 삼는다(以白山爲頭 大嶺爲脊 嶺南之對馬 湖南之耽羅 爲兩趾)."라는 글귀가 있고 19세기에 작성된 경상도 지도에서도 대마도는 조선 땅이다.

정한론(征韓論)의 시조 격인 일본 지리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1785년에 만든 '삼국접양지도'에도 대마도가 조선 땅으로 표기돼 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정부 수립이후 6·25전쟁 전까지 기자 회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대마도 반환을 요구했다.

15면으로 이어집니다.

예대로 돌아온 민족의 자존 숭례문

김관태

·본회 회우
·전 서울신문사업국장
·박물관 도슨트

지난 5월 4일 민족의 자존 숭례문이 조선 초기 옛 모습으로 새 단장을 하고 우리 앞에 나나났다. 2008년 2월 10일 밤, 19시 방화로 불벼락을 맞아 맥없이 무너진 지 5년 3개월. 몰골 사나온 모습을 털어내고 마침내 옛 모습을 되찾고 우뚝 섰다.

서울의 성곽과 함께 한양을 방어하는 중요한 핵심이요 현대에 이르기까지 600여 년을 수도의 관문으로서 위용을 떨친 숭례문이 마침내 늠름한 옛 모습 그대로 되돌아 온 것이다.

조선시대 사신을 보내고 맞는 장소요, 가뭄이 심할 때 기우제를, 장마가 계속될 때에는 기청제를, 때로는 중죄인을 치죄하며 임금이 거동, 시책을 국민에게 공표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태조 4년(1395)에 짓기 시작하여 3년후인 7년(1398)에 완성한 숭례문은 세종 29년(1447)때 고쳐지었으며 1961~1963년 해체·수리 때 성종 10년(1479)에도 큰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숭례문은 돌을 높이 쌓아 만든 석축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의 홍예문을 두고, 그 위에 앞면 5칸·옆면 2칸 크기로 지은 누각형 2층 건물이다.

지붕은 앞면에서 볼 때 사다리꼴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붕을 우진각지붕이라 한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기둥 윗부분에 장식하여 짠 구조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 있는 다포양식으로, 그 형태가 곡이 심하지 않고 짜임도 건실해 조선 전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숭례문의 현판은 세종의 형이자 당대의 명필로 이름을 떨쳤던 양녕대군이 쓴 것으로 '지봉유설'에 기록되어 있다.

4대문의 현판과는 달리 유독 숭례문만이 세로로 쓰여졌는데 이는 음양오행설에 따라 예(禮)자가 화(火)에 해당하며 화는 곧 남(南)에 해당되어 불이 타오르는 모양새인 세로로 달았다는 것이며 서울의 진산인 주작의 관악산이 불에 해당하므로 맞불을 놓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원래 숭례문은 5만8천2백척(약 18.5km)의 성곽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1907년 10월 26일 당시 일왕의 황태자였던 요시히토(嘉仁·후에 대정천황으로 취임)가 고개를 숙여 조선인과 같이 홍예문을 통행할 수 없다는 구실 아래 북쪽 성곽 약 77간을 헐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1925년에 준공된 조선신궁 건축을 구실삼아 숭례문에서 남산 광장까지 모든 성곽을 헐어버렸다.

5년 3개월 만에 옛모습으로 복원돼 일반에 공개된 숭례문의 위용.

화마로 소실된 숭례문은 진화와 동시에 문화재청의 감독하에 복구작업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복구공사는 약 3년이 걸렸다. 문루 해체 및 실측조사에 이어 숭례문에 대장간이 설치되고, 도끼, 끌, 대패 등 전통공구로 공사를 시작하였다. 또 기와는 제와장이 전통기와를 직접 손으로 빚어 숭례문 지붕에 올렸다. 단청은 전통안료를 사용했으며, 기와단청, 소방공사와 첨단과학 방재시스템으로 보강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끝으로 복구를 마무리했다.

전통방식의 복구를 목표로 공사를 시작한 숭례문 복구공사는 6인의 중요무형문화재 장인의 노고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밖에 목공사, 석공사, 기와공사, 단청공사, 철물제작 등에도 수천 명의 피땀이 스며 있음을 알아주어야 한다.

단청 작업에는 총 1,541명이 동원되었으며 12종의 천연안료 1,332㎏을 썼다. 이근복 번와장이 지휘한 기와공사에는 284명이 참여했다. 전통기와 2만 3,369장을 지붕에 이었는데, 암키와 1만 4,991장, 수키와 7,284장, 암막새 488장, 수막새 519장, 특수기와 96장 등을 사용했다.

목공사에는 신응수 대목장(복구 총책임)의 주도로 모두 3,968명이 참여해 추우나 더우나 피땀을 흘리며 숭례문 복구에 힘썼다. 목재는 15만 1,369재로 26t이 사용됐는데, 이중 화재를 피한 목재 6만 47재를 재활용했으며, 여러 시민이 기증한 목재 1만 855재가 사용됐다.

특히 이번에 복원된 숭례문의 화재예방 및 감시 장치는 거의 완벽하다할 정도로 철저하게 대비하였다.

CCTV를 통한 24시간 감시는 물론 화재에 대비해 스프링클러와 소화기, 비상경보설비 등 세밀한 화재 예방대책이 추가되었음은 물론이다.

14면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6·25 발발로 한국은 일본을 통해 유엔군과 물자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대마도 반환을 거론할 수 없었다.

최근에 팩션(Faction)형식의 소설 '천년의 恨(한) 대마도'를 펴낸 작가 이원호는 "대마도에는 한국의 성황당처럼 조상신이나 토지신(土地神)을 모시는 신사가 29개인데 모두 한반도를 향해 세워져 있다"면서 '이는 대마도가 우리 땅이란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료를 조사하다가) 1923년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역사학자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고문 주관 하에 대마도를 방문해 한국 관련 문서 6만6,469장, 고기록 3,576권, 고지도 34장 등을 불태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히고 "일본이 그토록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없앤 것은 대마도가 조선 땅이라는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라고 반문한다.(4월22일자 동아일보 인터뷰)

대마도탐방에 나선 언론인들이 한국전망대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주마간산'(走馬看山)격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대마도에 대한 포럼회원들의 감회는 대체로 일치하지 않았나 싶다. '대마도는 우리 땅인데 어찌해서…' 라는 그런 '정한'(情恨)의 심경으로서 말이다.

그렇다. 대마도는 우리 땅이어야 했다. 사료의 뒷받침으로서 뿐만이 아니다. 부산으로부터 지척(49.5 킬로)인 그 거리감에서부터 지세(地勢)로 느껴지는 대마도의 인상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러했다.

귀국하는 날, 현해탄에는 격랑이 일었다. 오늘의 한·일 관계처럼… 아니 두 나라의 역사가 간헐적으로 그러했던 것처럼… 파고 4미터. 상당수 승객들은 구토하며 고통스러워했다. 부산항에는 예정시간보다 40분 늦게 입항했다.

선린(善隣)으로서의 한·일 우호가 완전 복원될 날도 그렇게 지체될 것인가. 그런 상념과 함께 여객선 선실에서 발을 내렸다.

언론가 소식

언론재단 6월 13일 문화탐방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은 오는 6월 13일 충북 괴산 화양구곡일원의 문화유적을 답사한다. 프레스클럽 회원과 대한언론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는 괴강 관광단지 - 쌍곡·선유동계곡 - 각연사·화양계곡(화양구곡)- 한운사 기념관 등을 답사한다.

명화 '피아니스트' 감상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 5월 23일 오후 6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프레스클럽 및 대한언론인회 회원 180여명을 초청해 명화('피아니스트') 감상의 시간을 가졌다.

관훈초대석 카카오톡 강연

관훈클럽(총무 오태규)은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세계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무료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을 서비스하는 (주)카카오의 이석우 대표이사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다

이번 초대석은 '창조경제'의 실상과 어려움, 언론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가능성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일보 명예 되살리자" 한국일보 제재형 사우회장 성명

한국일보 사우회 제재형 회장은 최근 한국일보 노·사갈등 사태와 관련, 5월 29일 성명을 내고 "모든 한국일보 가족이 오상고절(傲霜孤節)의 기개와 슬기로 난국을 극복하고 정상을 달리던 한국일보의 명예를 되살리자"고 호소했다.

제 회장은 "무(無)에서 유(有)를 일궈낸 한국일보 기자들은 1954년 창간초기부터 청진동 해장국으로 허기를 달래고 비좁은 편집국에서 새우잠을 자며 하루 16시간씩 뼈빠지게 일하여 '세계속의 한국일보'를 창조 했다"고 말하면서 "노·사간 합심하여 60년 전통의 한국일보 문패를 반드시 수호하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사우회소식

봄철야유회 겸 정기총회

경향신문 경향신문 사우회(회장 김명수·본회 회우)는 오는 6월 28일 오전 11시 북한산 투데이스(북한산성 앞·송추방향·359-3354)에서 봄철 야유회 겸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김명수회장 취임 이후 처음 갖는 이번 봄철 야유회는 다채로운 여흥 프로와 풍성한 식단이 준비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단합대회 300여명 참석

동아일보 동아일보 사우회인 동우회(회장 김광희·본회 회우)는 지난 5월14일 한양대학교 동문회관 대연회장에서 2013년 봄철 단합대회겸 임시총회를 열었다.(사진) 300여명이 참석한 이 날 임시총회에서는 미수2명, 회수19명, 고희30명등 모두 51명의 동우에게 축수품(은수저세트)을 전달했다. 또한 2부행사인 단합대회에서는 초청가수 이동원, 이윤정씨의 열창에 이어 국대항 올스타전을 벌여 편집국 대표인 이홍우 동우(본회회우)가 대상을 차지했다. 이날 참석한 동우에게는 기념타월과 함께 이명득 동우의 부인 황보광 씨의 제 10시집 '도시 배롱나무의 꿈' 과 고덕환 동우가 협찬한 화분1개씩이 제공되었다.

회보 '조우' 13호 발행

조선일보 조선일보 사우회(회장 인보길)는 지난 5월 16일자로 사우회보 '朝友' 제 13호를 발행했다. 타블로이드판 20면으로 발행된 이번 회보는 1면 머리에 안병훈 (본회 회우·기파랑 출판사 대표)·박정자(상명대 명예교수) 부부대담을 실었다. '조선일보가 낳은 대한민국 대표부부' 로 소개된 이 기사는 4면에 걸쳐 대서특필했다.

김철호 사우회장 선출

신아일보 신아일보 사우회는 지난 5월 6일 서울 중구 정동 이따리아노 레스토랑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윤종보 전 회장 작고 이후 대행체제로 운영해 오던 김철호 회장 직무대행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철호 신임회장은 신아일보기자를 시작으로 경향신문 정치부기자, MBC 보도국부국장, 해설위원을 역임했다.

청계산서 첫 등산모임

헤럴드 헤럴드 경제(전 내외경제)와 코리아 헤럴드 전직 사우로 구성된 헤럴드 사우회(회장 윤익한·본회 상담역·전 코리아 헤럴드전무)는 지난 5월 25일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계산에서 첫 등산모임을 갖고 친목을 다졌다.(사진) 헤럴드 사우회는 한편 이 날 임시 이사회를 갖고 이향숙 회원(본회 회우)을 여성대표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헤럴드 사우회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산행모임을 갖기로 했다.

을왕리에서 단합대회

MBC MBC 사우회(회장 김수량)는 지난 5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사우회 창립 23주년을 기념하는 단합대회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옆 골든스카이리조트에서 열었다. 김종국 MBC사장, 김수량 사우회 회장 등 회원 350여명이 참석한 이번 단합대회는 첫날 '축제의 밤'등 다양한 여흥 프로로 단합을 과시했다.

현준건 원로회우 별세

현준건 원로회우가 지난 5월 6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장례식장에서 8일 아침 발인했다.

고 현준건 원로회우는 1926년 4월 19일 부산 출생으로 1945년 부산일보에 입사, 언론계에 첫발을 내 디뎠다.

그 후 국제신보, 현대경제일보, 경향신문 등으로 옮겨 줄곧 교정 업무를 맡아보았다. 가장 오래 근무한 신문사는 경향신문으로 주간경향 정리부차장, 출판국 주간 2부 차장, 출판국 부장으로 정년퇴임했다. 대한언론인회 회원이던 1987년부터는 회보 편집위원으로 여러 해 동안 교열을 맡아 본 경력도 갖고 있다.

대한언론인회는 5월 7일 오후 4시 고인의 빈소에서 신우식 고문, 홍원기 회장, 김성배 정기정 부회장, 정운종 이사등 임원진들과 경향 사우 등 많은 조문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을 거행했다. 이날 정기정 부회장은 황대연 원로위원회 위원장이 쓴 조사를 대독했다.

弔辭 고결하고 조용했던 성품

故 현준건선생 영전에 황대연(본회원로위원회 위원장)

정기정 본회 부회장이 조사를 대독하고 있다.

현준건 선생님!

이렇게 뜻밖에도, 영전에서, 그리고 오랜만에 선생님의 존함을 불러보니 목이 메어 가슴이 막혀오는 전율을 느낍니다.

이 무슨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입니까?

늘 존경해 마지않았던 현 선생님이 유명을 달리하셨다니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비보에 접한 저는 한동안 거짓말이겠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감돌아 현기증을 느끼면서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무심한 봄 하늘은 푸르고 어디선가 라일락의 향기가 번져오고 있었으며 그 향기 속에 현 선생님의 그렇듯 조용하신 모습이 아련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삼가 명복을 비오며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현 선생님!

공사 간에 자리를 함께 하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선생님은 잡담이나 농담 한 마디도 하시지 않는 아주 과묵하신 성격으로 늘 조용하신 성품을 지니셨습니다.

한마디 실수도 없으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더욱이 저하고는 바로 앞 뒷집에 살고 계시면서도 담밖으로 넘어오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어 본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의 그 고결하고 조용하신 성품을 배워야겠다고 수 없이 다짐을 했으나 범인으로서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쇠사슬에서 풀렸던 1945년 약관 스무살에 부산일보에 입사하시어 교열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방이 되긴 했으나 해방 직후 우리의 한글은 맞춤법이 엉망이었습니다. 물론 한글학회의 '표준 한글 맞춤법'이 있었으나 일인들의 강압에 의해 전혀 보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과도기에 선생님은 신문에서 올바른 어문의 표현에 전념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후 40년을 한결 같이 국제신보, 현대경제, 경향신문 등에서 오로지 교열에 전념하셨고, 1987년에는 우리 대한언론인회에서 편집위원으로 활약하시면서 평생을 활자와 싸우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 교열에 열중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옵니다.

현 선생님!

와병으로 몇 년 동안을 고생하시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번 찾아뵙고 따뜻한 차 한잔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이렇게 선생님 영전에 서게 되니 못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불러보는 현준건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

다시 한 번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번민도 고통도 없는 저승에서 부디 극락영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5월 7일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ChosunMedia
조선일보

NO.1 뉴스앱

2012년 뉴스앱 주간 이용률

한국광고주협회자료

※ 2012년 10월 18세이상 성인남녀 1만명 대상 조사

회우동정 가나다순

'드라마 스캔들' 출판기념회

김인규(전 KBS사장)회우= 지난 5월 10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신관 공개홀 로비에서 '드라마 스캔들'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번에 출간하는 '드라마 스캔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문화일보에 10회에 걸쳐 연재됐던 글을 비롯해 드라마 제작현장의 비화를 담은 책이다.

청류회 주관 '설국' 등 영화감상

김 현(문화산책 청류회 회장)회우= 오는 6월 14일 10시 김 회우의 숙소인 그레이스힐 영상관에서 일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가와바다 야스나리의 '설국'과 유럽 영화 100년 역사상 '대부'의 뒤를 이어 관객 평점 톱2를 차지한 '그루미 선데이' 등 2편을 감상한다.

순천대 포럼 패널로 참석

김휴선(전 MBC 보도국 부국장)회우= 지난 5월 14일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포럼에 패널로 참석, 전국 16개 광역시도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 설립은 필연적이라고 역설.

조우회보에 데스크 대담

송형목(전 조선일보상무·전 광고국장)회우= 지난 5월 16일 발행된 조우회보 10면에 김광현 AD본부장과 '한세대를 뛰어넘는 데스크 대담'을 가졌다.

자원순환 정책포럼 회장피선

원충희(사단법인 자원순환사업협회회장)회우= 5월28일 오후3시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자원순환정책포럼'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

국민훈장 동백장 받아

이성춘(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장·전 한국일보 논설위원)회우= 지난 5월 10일 중앙선관위 창설 50주년을 맞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재임시절 TV토론 제도 도입으로 선거비용 절감과 후보 간 정책경쟁 정착 등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영방송의 책무' 심포지엄

이원창(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회우=지난 4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KBS와 공동주최로 '공영방송의 공공적 책무와 재원적 기초'를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납북인사 이름부르기' 행사주관

이태영(전 중앙일보 편집국섹션국장)본회 부회장= 지난 5월 1일 광화문 네거리 원표공원에서 있은 납북인사 이름부르기 행사에 참석,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대변인 자격으로 수잔 솔티 미국 디펜스포럼 대표 등 각국 대표들과 함께 개회사를 통해 "8만여 납북인사는 물론 116명의 생존 국군포로와 북한주민 모두의 자유를 위한 싸움에 함께 해줄 것"을 호소했다.

운경 21주기 추모식 회고사

제재형(한국일보사우회 회장)본회 고문= 지난 5월 22일 양평 가족묘소에서 진행된 운경(雲耕) 이재형선생 21주기 추모식에서 회고사를 통해 상공부장관과 국회의장을 지낸 고인의 유덕을 기렸다.

환경문화대상 심사위원장

천상기(경기대 초빙교수)회우= 환경부와 국제환경방송, 월드그린 환경연합이 공동주관하고 국회 환경노동위가 후원하는 제12회 2013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 심사위원장에 위촉됐다. 시상식은 6월 12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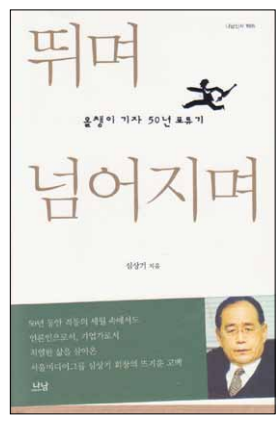
'채널A' 출연 아웅산 테러 증언

최재욱(전 환경부 장관·전 국회의원)회우= 지난 5월 20일(월) 오후 5시 30분 종편 TV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 아웅산 테러 30주년 회고와 북핵관계에 대해 전망.

양주시민회 고문추대

홍원기 회장= 지난 5월 30일 경기도 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년도 양주시민회 정기총회에서 고문으로 재추대됐다. 홍 회장은 5-6대 양주시민회장을 역임했다.

심상기회우 자서전 '뛰며 넘어지며'
출판기념회 600여명 참석 성황



심상기(서울미디어그룹 회장·전 경향신문 사장)회우의 자서전 '뛰며 넘어지며' 출판기념회가 5월 28일 오후 6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 회의장에서 열렸다.(사진) 이창섭 MBC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출판기념회는 저자의 전 현직 직장 동료 등 6백 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심상기 회우의 자서전 '뛰며 넘어지며'는 저자가 경향신문 사회부 정치부 기자를 거쳐 중앙일보 정치부장 편집국장, 출판국장 상무, 경향신문, 일요신문, 시사저널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몸소 겪거나 목격한 여러 가지 못 다한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회고한 글들이다. 심상기 회우는 '올챙이 기자 50년 표류기'란 부제를 단 이 책에서 "나는 뛰면서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 또 뛰었다. 넘어지면서 생긴 마음의 상처가 작지 않았지만 또한 시련을 이겨 내려는 나름대로의 의지도 그에 못지않았다" 고 회고 하고 "내가 언론인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시도함으로써 지금에 이르렀다는 사실 만큼은 내세우고 싶다"고 적고 있다. 책 머리엔 최종률 전 경향신문사장과 김학준 전 동아일보사장이 추천글을 썼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는 김윤영 대전고출신 언론인회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만섭 전 국회의장, 김경래 전 경향신문사우회 회장(본회 원로회우), 최학래 전 한겨레신문 사장이 축사를 했다.

송복 회우 부부서예전 엽니다

송 복(연세대 명예교수)회우는 오는 6월 19~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부인 하경희여사(전 이화여대·배화여대 강사)와 함께 '송복·하경희 부부 맹자 글귀전'을 연다.

'맹자'에 나오는 유명 글귀 160개를 골라 쓴 이번 서예전 작품들은 송교수 부부의 제자와 지인들에게 좌우명, 가훈용으로 무료로 나누어 준다고. 송교수와 하여사는 1997년 첫 번째 '송복 하경희 부부 '논어 글귀전'을 가졌으며 지난 50여년 간 함께 서예를 해왔다.

개막식은 19일 오후 5시, 화환은 절대 사절한다.

6월 건강포럼 15일 개최

6월의 '토요건강포럼'은 오는 1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명동입구에 있는 '이윤수·조성완 비뇨기과' 홀에서 열린다. 연사는 본회회원인 이광영 골든에이지 상임이사로 '노년의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 강의한다.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가나다순·괄호안 납입연도)

박동선(입회비,13)
백인호(13)
유승택(13)
이경식(13)
임종건(입회비,13)
전신병(13)
정운택(13)
조관희(13)
한중광(13)

▶ 저서 보내주신 분 ◀

김경래 원로회우= 김경래 회고록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성사·2013년 발행)
심상기 회우= 심상기 회고록 '뛰며 넘어지며' (기파랑 출판사·2013년 발행)

▶ 주소·전화번호 변경 ◀

김춘빈 회우= 010-8770-1781
김해도 이사= 010-8234-1538
송선무 회우= 경기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만현마을 쌍용1차 아파트 701동 502호
오동환 회우= 서울 은평구 구산동14-22 3층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광고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www.kra.co.kr

1등 사회공헌기업, 한국마사회의 행복한 달리기

KRA 한국마사회는 매년 **1조7천억** 원을
국가와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KRA는 국가 및 지방 재정에 기여합니다!

-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재정 기여 _ **1조1,189억**원
- 농특세, 법인세 등 국가재정 기여 _ **3,340억**원

KRA는 축산농가 및 농어민에게 활력을 전합니다!

- 축산농가 발전기금 _ **1,835억**원 출연
- 농어민 복지증진사업 _ **109억**원 출연
- 농어민자녀 장학사업 _ **162억**원 출연
- 농축산 홍보 및 마사진흥사업 _ **187억**원 출연

KRA는 이웃사랑 나눔실천으로 희망을 키웁니다!

- 사회공헌 기부사업 _ **205억**원
  - 정서행동장애 치유를 위한 승마힐링센터 2개소 운영
  - 장애 청소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리스타 취업교육센터 5개소 운영
  - 지적장애 청소년 야간교육센터 6개소 운영
  - 매년 전국 농어촌소재 지역 복지시설 및 단체에 승합차 200대 지원
    (2004~2012년까지 총 750대 지원)

1등 사회공헌기업
KRA 한국마사회

대한민국 행복 일자리,
LH와 함께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일자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만든 전국 679개 임대아파트 단지,
53만여 세대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함께 키워가는 **LH실버사원**입니다.

원계주공1단지 실버사원
(왼쪽부터)
문선자
류정선
강성희
김의홍
남정원
박정현
김금자
권 경
김춘자
곽웅팡

2013년 제3기 LH실버사원 발대식

대한민국의 행복을 키우는 사람들

3천명의 LH실버사원이 하는 일

- **취약세대 돌봄서비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 장애인 돌봄서비스
- **단지환경 정비활동** 화단정리지원 | 공용시설물 정비지원
- **시설물 안전점검** 소방시설물 점검 | 어린이놀이터 점검
- **임대아파트 입주지원** 공가세대 점검 | 입주자 실태조사 지원

LH 한국토지주택공사